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이번 아마존 비전 트립(Vision Trip) 인도 하신 하나님과 또 이여행을 위해 기도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신 동역자 분들과 현지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 주신 선교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30 년을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 하면서 평신도 사역의 한계를 경험하며,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목사 안수 받도 또 노회 파송 선교사로 첫 선교를 떠나면서 앞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정신을 본받아(롬 15:20) 세계복음화 전략으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미접촉 선교(Unengaged People)**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며, 세계복음화의 남겨진 과업완수인 “복음을 전하는 일” 을 그 목적으로 사역을 할것 입니다.

**\*비전트립 목적:** 아마존의 심장을 가로 지르는 아마존 강을 횡단 하면서 아마존강 원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Vision)을 얻는것이고 향후 저희 사역할 지역을 개척 하기위함입니다.

**\*일정:** 2022 년 3 월 21 일~4 월 14 일까지.

**\*아마존강 개요:** 남아메리카 대륙 북부 아마조니아(Amazonia) 평원을 횡단하는 강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강. 그리고 열대우림을<sup>1</sup> 끼고 흐르면서, 아프리카의 나일강과 더불어 세계에서 제일 긴 강<sup>2</sup>으로 나일 강의 40~60 배 이상의 수량을 바다로 방출하며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에 유역과 지류가 걸쳐 있지만 아마존 본류의 대부분은 브라질 영토를 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브라질에 있는 강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sup>3</sup>

**\*아마존 강 발원지:** 아마존 강<sup>4</sup>이 유럽인에 의해 발견된 이후 강의 시작점<sup>5</sup>을 찾기 위한 탐험과 연구는 계속되어왔다. 오늘날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강의 시작점은 남미 칠라 산맥(Chila Mountain Range)에 있는 봉우리 중 하나인데, (Nevado Mimsi Peak-높이 5,597 미터) 이 봉우

---

<sup>1</sup> 아마존 열대우림은 브라질과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페루, 수리남, 베네수엘라 등 8 개국에 걸쳐 있으며 전체 넓이는 750 만km<sup>2</sup>에 달한다. 열대우림 가운데 60% 정도는 브라질에 속하며 '아마조니아 레가우'(Amazonia Legal)로 불린다.

<sup>2</sup> 페루와 브라질을 지나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존 강의 전체 길이는 7 천 62 km(4,388 마일)로 조사됐고 “아마존강이 아프리카의 나일강보다 391 km가 길다” 고 페루 지리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sup>3</sup> <https://namu.moe/w/>. 04 월 25 일 2022 년.

<sup>4</sup> 아마존강은 남아메리카 대륙을 가로지르며 매우 넓고 길게 흐르고 있으며 무려 남미 9 개국에 걸쳐있고(에콰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가이아나, 프랑스령인 기아나,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수리남)이중 브라질에 아마존 강의 60%를 차지하고있을 정도로 가장 넓은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sup>5</sup> 페루 안데스산맥에서 발원하여 처음에는 북류(北流)하다가 나중에 동류하여 브라질 북부를 관류한 다음 적도상(赤道上)의 대서양으로 흘러든다. 유역은 북위 5° (리우브랑쿠江의 水源)에서 남위 20° (볼리비아 남부) 사이, 경도는 서경 50° 78° 사이에 해당한다.

아마존은 우선 2 개의 큰 강, 즉 **마라논강(Marauón River)**과 **우카얄리강(Ucayali River)**이 합류하여 형성된다. [http://www.startour.pe.kr/local/s\\_america/Guide-Brazil-Amazon](http://www.startour.pe.kr/local/s_america/Guide-Brazil-Amazon). 04 월 25 일 2022 년.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리는 티티카카(Lake Titicaca)<sup>6</sup> 호수에서 서쪽으로 약 160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곳에서 형성된 골짜기가 Rio Lloqueta 로 형성되며, 곧 Rio Hornillos 와 합류 하며 이후 Rio Apuramic 에 합류하면서 아마존 강의 일원이 된다.<sup>7</sup>

**\*아마존 강 이름의 유래:** 유럽 인들(특히 스페인 정복자들)이 처음 이 강에 도착하여 탐험했을 때, 그들은 이 강을 마라논(Maranon)강이라고 불렀습니다. 16 세기 중반 스페인의 탐험가이자 정복자였던 Francisco de Orellana 가 이 강을 탐험할 때 그들은 한 원주민 부족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원주민 군대의 리더는 여자였는데, 이후 Orellana 는 고향인 스페인에 돌아가 이 강의 이름을 Rio Amazonas 라고 보고했고, 이 이름은 곧 유럽 전역에서 통용되었습니다. Rio Amazonas 를 영어로 변형한 이름이 Amazon River 입니다.<sup>8</sup>(아마존 이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며, 아마조네스(Amazones)는 그리스어로 젖이 없다는 의미로 여전사들로 구성된 부족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화살을 더 잘쏘기위해 한쪽가슴을 없애기도 했다고 한다.)

**\*여행 거리:**는 1)미국 San Francisco 에서 3 월 21 일 출발하여 페루 이키토스(Iquitos)를 거쳐 나우타(Naute). 2)페루 나우타(Naute) 에서 산타 실비아 지역 우라니나족(Santa Silvia, Urarinas Community) 왕복 1,400km(869 마일). 3)페루 이키토스(Iquitos)에서 페루 산타로사(Santa Rosa). 4)페루 산타로사(Santa Rosa) 에서 브라질 파바징가(Tabatinga). 5)브라질 파바징가(Tabatinga)에서 브라질 마나우스(Manaus). 6)브라질 마나우스(Manaus) 에서 브라질 강하구의 벨렘( Belém) .7)브라질 벨렘( Belém)에서 4 월 14 일 San Francisco 도착까지이며 기간은 25 일 이고 아마존 강에서 배로 이동 거리는 총 13,278 Km (8,251 Mile)이었다.

2017 년에 페루 아마존 나우타(Naute)<sup>9</sup> 지역에서 H 선교사를 처음 만나 우라니나족(Santa Silvia, Urarinas Community)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 H 선교사는 우라니나족 사역지를 개척하기위해 2012 년부터 방문하였고 방문 할때 원주민이 활을 쏘고 배를 파손 시키는 위험을 당하였지만 포기 하

---

<sup>6</sup> 티티카카호(스페인어: El lago Titicaca, 케추아어: Titicaca Qucha, 영어: Lake Titicaca, 문화어: 띠띠까까 호)는 페루와 볼리비아 사이에 있는 호수이다.

<sup>7</sup> Rio 는 스페인어로 강 이라는 의미 <https://catsby0723.tistory.com/104>. 04 월 25 일 2022 년.

<sup>8</sup> <https://catsby0723.tistory.com/104>. 04 월 25 일 2022 년.

<sup>9</sup>이키토스 도시에서 차로 약 2 시간 남으로 내려오면 나우타 지역이 있다. 나우타는 마라논 강 하류에 있는 인구 약 4 만 5 천의 자그마한 시이며, 나우타에서 3km 정도 외각으로 떨어진 곳에 약 50 에이커의 선교센터 부지가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지 않고 접근하여 우라나나족 마을중 제일큰 마을에 아이들 학교와 보건소를 건립 하였고 이를 계기로 마을과 정부에서 인정 받아 이번에 보건소 개원식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교두보 역할을 위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속에도 후원교회 목사들과 파송교회 담임목사 교단선교회회장등과 같이 참석을 하였다.본인은 원래 4 년전부터 우라나나족을 방문 할려고 기도으로 준비하다 코로나가 터져 이번에 여러 팀과 같이 동행 하게 되었다.



<아마존강 횡단 지도-우라나나족 부터 벨렝까지-총 13,278Km /8,251 마일>

**\*1 일차:3 월 21 일(월)-날씨 좋음.**

비행기가 5:15 PM 에 SF 공항에서 출발이라, 오전 11:00 부터 움직여 근처 빵집으로갔다. 선교사님께서 달달한 앙꼬빵이 드시고 싶다고 카톡에 올렸기 때문이다. 선교사님은 당뇨 등 여러가지 질병을 갖고 계시지만 힘든 코로나 기간에도 미국에 들어오시지 않고 현지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며 제일 먹고 싶은것이 단팻빵 이라기에 빵을 사러 갔다.(10 개 샀는데 비행 도중에 배가고파 2 개를 먹고 8 개만 드렸다.)

12시에 집으로 오니 사위 브라이언 전도사가 공항에 데려다 준다고 기다리고 있었다.힘든데 왜 왔냐고 말은 하였지만 내심 고마웠다. 원래 월요일은 교역자들은 쉬는 날이라 말안하고 우버(Uber) 타고 갈려고 하였는데 전날 사역에 힘든데다 둘째 가 태어난지 1달이 안되서 밤새 아이 보느라고 잠을 못자는데도 불구하고 차로 공항에 잘 데려다 줘서 편하게 도착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할수 있어 좋았다. 다른 나라들은 PCR코로나검사를 요구 하는데 페루는 백신 접종카드 와 인터넷에서 본인이 여행자 입국수속한 카피를 비행기탈때 보여주면 된다. 모든 수속마치고 비행기는 예정된 시간인 5:15 PM 에 SF 공항을 이륙하여 6:40PM 에 LA 공항에 도착하였고 8:20PM 분에 라탐 항공(LATAM Airlines)으로 바꿔타고 밤새 날아 다음날 아침7:20 분에(22일, 화) 페루 리마 공항(Lima, LIM - Peru)에 도착 했다.

**\*2 일차:3 월 22 일(화)-**날씨는 화창 하였지만 습도가 높고 더웠음.

4 년만에 리마(Lima, LIM - Peru) 공항에 내리니 후덥지근한 날씨가 나를 반겼고 공항 직원이 마스크를 2 개 쓰라고 한다. 이퀴토스(Iquitos) 를 가기 위해 출구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J 목사님을 만났다.(좁으로 2 번 만난 상황이라 낯설지가 않았고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 주셨다. 첫 인상이 참 좋은목사란 인상이 남았다)

라탐 비행기는 한국 비행기처럼 서비스가 좋지 않고 좌석도 편하지 않았다. 밤새 자는등 마는 등 뜯눈으로 밤을세우고 아침에 밥도 못먹어 빵과 커피로 허기를 달래고 오전 10:20 분 비행기로 이퀴토스로 향하였다. 기장이 30 분후에 이퀴토스에 도착 한다는 안내 방송이 끝나고 아래를 보니 꾸불꾸불한 아마존 강이 보인다.



<비행기서 본 아마존 강과 이퀴토스 공항>

12:10 PM 비행기는 활주로 끝에 섰고 문이 열리자 이동식 계단이 문앞에 설치되었고 모두 내려 걸어서 공항 안까지 걸어갔다. 지열로 달구어 놓은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5 분 의 시간에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것을 느끼며 아마존 도착이 실감이 났다. 짐을 찾아 문을 나서니 H 선교사가<sup>10</sup> 반갑게 맞아 주었다. 공항에서 센터 까지는 1 시간 40 분정도 소요될 예상이라 하였고

---

<sup>10</sup>선교사 소개:Peter Han (한원강.한경애) 목사, 선교사, 2003 년부터 아마존 강 상류 Porvenir 이라는 마을을 방문하여 아마존에 관심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선교사역 시작, 2006-2008 년 한국 국제 기아 대책에서 훈련을 받고 아마존 선교사로 파송. 2008 년 재미고신 동북 노회 선교사로 파송. 2009 년 재미고신 총회 선교사로 인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중간에 환영 한다며 코코아를 사줘서 멀었는데 코코아가 오래되서 그런지 코코아 물이 다른나라에서 먹던것 보다 맛이 없었다.

4:30 PM 센타에<sup>11</sup> 도착 하자마자 모기약, 모기향 을 피고 텐트를 먼저 쳤다. 센타에는 불이 없기에 해가 있을때 모든일을 해두면 좋다.(전기는 하루에 몇시간씩 발전기를 돌려 사용하고 있으나 가솔린 가격이 비싸 잘 사용 못하는 것 같다. 사모님의 소원이 전기 들어오는 시내에 사는 것 이란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린다) 거의 2일을 잠을 못자서 저녁 먹고 일찍 잤다.

**\*3 일차: 3월 23 일(수)-새벽에 비가 오고 오전에 해뜨고 후덥 지근함.**

밤새 비가 양은철판 지붕위를 두드리는 소리에 5 번 이상 깬것 같다. 아침먹고 선교사님은 다른 일행 픽업 하기 위해 사모님과 같이 공항에 나가셨다. 파송교회 담임 목사 와 총회 선교회장과 후원교회 목사가 온단다. 말은 안하고 무척 긴장하신듯 하다.

센타는 계곡 아래 연못위에 건축되어 바람도 안불고 태양이 내리쬐면 밤새내린 물기가 수증기로 올라오면서 사우나를 연상 시킨다. 4 년전 센타를 방문하여 지리를 잘 아는 터라 2 분을 모시고 센타를 구경 시켜 드리다가 나는 대형 사고를 당했다.(풀밭에 걸어나다가 두 다리에 벼룩 과 알지 못하는 무언가에게 수십방을 물려 여행 내내 그리고 돌아와서 몇주를 고생 하였다)



<센타 로 가는길 & 센타서 벌레에 물린 자국>

---

준 후 2010 년부터 현재까지 재미 고신 총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활동. 페루 로레토 주 보건국 평의원 이자 심의회의 위원으로 활동(2015 년 11 월~2020 년 11 월). 페루 ANP(Asociacion Nacional Periodistas del PERU) 기자협회 소속 기자(2015 년 10 월~현재). 페루 Fundacion Amazonia Casa Hogar Promesa COREA PERU (아마존 약속의 집 한국, 페루 재단) 설립자 및 현 회장(2013 년~현재), 페루 나우타(Radio 96.7 FM)차라빠따 방송국 사장(2016 년~현재), 페루 로레토 주 대통령 보좌관 자문 위원(2017~2018 년 3 월), Loreto Provincia 나우타 시 Subprefecto 자문 위원.(2018~2020 년 10 월). 한국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교실 외래교수(2015 년 ~2019 년)

<sup>11</sup>나우타 시내에서 3km 정도 외각으로 떨어진 곳에 Km-3 길 선상에 약 50 에이커의 선교센터 부지가 있다. 이곳에서 각 부족에서 데려온 아이들 15 명을 공부 시키고 신앙인으로 훈련 시키고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오늘 오후에 3 명의 일행이 정오 12:20 분에 올 예정인데 그중 한목사가 쓴 비행기표를 구입하여 연락되는 바람에 비행을 놓쳐 도착을 못하여 먼저온 일행과 선교사님께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다.다행히 몇시간 더 걸렸지만 잘 도착하여 오후 늦게 센타에 도착 하였지만 이번엔 가방이 도착을 안했다.(인터넷으로 쓴 비행기표를 사면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진다.남미 비행기표는 꼭 여행사를 통해 사고 비행기연결 시간은 최소 2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한다)

원님덕에 나팔분다고 저녁을 아주 풍성하게 잘대접 받았다.선교회장.파송교회목사.후원교회 목사 들이 온다고 사모님께서 비행기로 음식재료를 공수하여 잘 대접하여 주었다.)

내일은 새벽 5 시에 우라니족을 가야 하기에 짐을 정리 하고 일찍 잤다..

#### \*4 일차:3 월 24 일(목)- 비가오다 해가나다 비가옴

밤새 가렵고.. 천둥 번개치고.. 개들은 짓고 싸우고.. 비오는 소리는 누가양은지붕에 돌던지는 우당땅땅 소리로 들려 눈만 감고 있었던것같다.5:30 AM 에참비라강(Chambira River) 우라니족 마을(Santa Silvia,Urarinas Community)로 출발(배로 10 시간 이상 이동) 하여야 하기에 4 시에 일어나 후레쉬를 켜고 우라니족 에서 사용할 음식과 짐을 다시 썼다.4:30 분 정도 되니 모두 짐을 싸야 하기에 선교사님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켜 주었고 새벽 5 시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여명의 시간에 후레쉬를 비추고 센타를 나와 선착장으로 향했다.

나우타선착장에<sup>12</sup> 도착하니 여러 단체에서 사람들이 와 있었다.선교사님은 우리들을 인사 시켜 주었다.국회의원.보건소장.정부에서 온 말라리아 연구원 등등..간단히 인사후 배 3 척에 나누어 출발 하였고 바로 사모님이 준비한 아침(김밥.계란.과자.물)을주셔서 맛있게 먹으면서 10 시간정도 항해하여 오후 5 시쯤 마을에 도착하니 원주민 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지만 옷지를 얇아서 무척 당황 스러웠다.맞다 옷지 않는 종족 이었다.(이 사람들은 내가 무서운가 보다. 내가 아무리 웃겨도 안웃는다.그런 내모습이 너무나 멋쩍다.여행 중 생각해 보니 난생 처음 이방인을 보니 무서웠을거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이 많은것 같았다.)

---

<sup>12</sup> 이키토스 도시에서 차로 약 2 시간 남으로 내려오면 읍 정도의 크기의 나우타라는 동네가 나온다. 나우타는 마라농 강 하류에 있는 인구 약 4 만 5 천의 자그마한 시이다.이 나우타에서 3km 정도 외각으로 떨어진 곳에 약 50 에이커의 선교센터 부지가 있다. 한 선교사는 아직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있지만,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종족들이 살고 있고 거의 외부의 접촉이 없는 미전도 종족들을 향하여 저 깊숙한 정글까지 찾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고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웃지않는종족인 우라나족>

마을 저끝에 H 선교사가 건축한 학교 건물이 보였다.마을은 축구를 할수 있는 큰 공간을 사이에 두고 빙 돌아가며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다.(정글이라 목재를 구하기 쉬운지 바닥과 기둥은 나무이고 지붕은 지푸라기로되어 있는 한국의 원두막 형태로 되어있었고 모기장도 없고 벽이 없어 옆집에서 뿜하는지 다 보고 있다.)



<우라나족 마을 풍경>

우린 마을 한복판을 지나 학교로 가서 먼저 텐트를 쳤다.적(모기)으로 부터 방어를 할려면 해지기 전에 텐트를쳐놓고 모기향을 쬐 놔야 안전 하다.(모기가 제일 많은 시간은 해가 지려고 할때 와 해가 뜰려고 할때이다.해가 질려고 할때는 말라리아 모기가 나오고 해가 뜰려고 할때는 황열병 모기가 나온다.) 그리고 미국서 가져간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 하였다.그렇지 않으면 밤에 정글에서 풀밭에서 큰일을 볼때 모기밥이 되기 때문이다.(우리는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 하였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사모님이 힘들고 바쁜 와중에 저녁을 준비 하였다. 뭘 먹었는데 생각이 안난다. 무더위에 모기에 물려 가면서 음식을 하신 사모님께 감사 드린다. 선교지에 가보면 사모님들이 손님 치루느라 너무 고생이시다. 저녁을 먹자 마자 텐트에 들어가서 찬양 부르며 잠을 청하였다.

**\*5 일차: 3월 25 일(금)-아침에 비오다 해가남.**

새벽에 화장실 갈려고 일어나 하늘을 보니 별이 너무 크게 보였다. 은하수.. 저멀히 이름 모를 행성.. 더보고싶는데 정글 안쪽에서는 짐승 소리가 들려 빨리 텐트로 들어가 잠을 청하지만 잠이 안왔다. 시간을 보니 새벽 2:30 분.. 기도가 절로 나와 기도 하다.. 얼치락 .. 위치락.. 하다보니 옆집도 깰것같아 시간을 보니 새벽 5 시.. 새벽 예배 시간이라 모두 자동 으로 일어난것 같아서 버너에 불을 켜고 믹스 커피와 미숫가루를 섞어 마시니 피곤함과 허기가 해결되고 힘이 생겼다. 한참후에 같이온 목사들과 정식으로 아침예배를 드리고 개원식에 참여 하였다.

오전 10 시에 보건소 와 말라리아 연구실 개원식 을 진행 하였다. 이곳이 페루에서 말라리아가 제일 많은 지역이라 앞으로 말라리아 연구를 위해 정부에서 국회 의원을 보내 상황을 보러 온 것이다.



<페루 정부 각종 단체 장 뒷모습 과 보건소>

페루 국가와 애국가를 시작으로 선교사님 소속교단선교회장인 J 목사의 축사가 선포되고 보건소 건물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하여 지어 졌지만 정기적으로 진료는 페루 정부에서 진행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건물 관리는 마을 추장이 하는 조건으로 추장에게 보건소 열쇠를 인수 인계 하였다. 오지에 최신식 건물로 지어진 보건소가 언뜻 봐도 어울리지 않고 이만큼까지 과연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치료를 하러올까 하는 의심이 생겼다 왜냐면 여기 참석한 국내 귀빈과 관계자들 모두 이곳을 처음 방문 하였고 사진만 열심히 찍는 폼이 다시는 안올거란 느낌이 들지만 우리가 보고 돌아가기에 기도로 다음 사역을 준비하여 다시 올거라는 믿음이 생겼다.

### 우라리나 종족 산타 복음 진료소 개원 축사

오늘 우리는 이곳에 우라리나 종족이 사는 상류 잠비라강 산타 실비아 복음 진료소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여기에 페루 정부 관계자들, 로레토주 정부 직원들, 인디오 마을 원주민 여러분, 그리고 미국에서 온 축하 사절단 모두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모였습니다. 산타 실비아 복음 진료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우라리나 종족 산타 복음 진료소 개원을 위하여 애써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를 치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하하고 싶습니다. 미국 축하 사절단인 우리가 이곳으로 오는데는 많은 시간을 걸렸습니다. 덕분에 아마존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소를 개원하기 위하여 잠바라강을 수없이 원자재를 실어나르고 건축에 힘쓴 많은 분들의 수고와 물질을 아낌없이 지원한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약 20년여만에 이런 결실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장서 수고하신 한원강선교사님과 연방 정부 그리고 협력해 주신 로레토 주 정부에게 깊이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담아 힘찬 박수를 한 번 보내드립니다. (박수) 한원강선교사가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고, 한국과 미국의 많은 한인교회들이 후원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또 우리는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퍼지면 퍼질수록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퍼질수록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오늘 개원하는 복음 진료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잘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이 산타 실비아 복음 진료소 개원을 통해 좋은 의료 혜택이 주민들에게 제공되고, 열대병 연구에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해 지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미 총회는 페루와 아마존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아마존을 사랑하는 선교사를 보내고 물질의 지원도 계속 할 것입니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나라 종족 산타 복음 진료소 개원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자 추장이 고맙다고 귀한 선물을 갖고와 먹으란다. 통안을 열어보니 안에는 원숭이 2 마리가 껍질이 벗겨 있었고 보기가 흉측 하였지만 대표로 K 목사가 받아 다시 통에 넣어 버렸다. (추장은 자신이 직접 그려 만든 모자를 쓰고 있었다)



<추장과 원숭이 고기>

인디오 주민들은 점심 식사후 축구 대회를 시작 하였는데 실력이 너무 좋다. 이웃마을에서 여러 팀들이 배타고 도착하여 리그전(League)<sup>13</sup>을 벌이는데 너무 진지하여 무슨내기 하나고 물어 봤더니 원주민 들은 내기 없이 경기 하는 법이 없단다. (바나나. 담배. 사냥용실탄. 등등)

한참을 보다 모두 원주민 가정 방문을 하기로 하고 자리에 일어섰다. 한집 한집 들리면서

<sup>13</sup>여러팀이 일정한 기간에 같은 시합수로 대결을 한후에 그 성적에 따라 순위를 결정하는 경기 방식.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마음속으로 그들을 축복하기로 하였는데 예상 했던 난관에 봉착했다. 이들 문화<sup>14</sup>는 손님이 오면 집에서 제일 귀한 음식을 내어 같이 먹으면서 소통을 하는데 이 음식 문화는 세계어디를 가도 똑 같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가정집을 방문 하면 모든 여자들이 때가 시커머께 묻은 플라스틱 통에서 집앞 강물로 만든 “마사토” (Masato)<sup>15</sup> 를 퍼서 까만 박 바가지에 담아 본인이 먼저 먹고 손으로 자기 먹은곳을 닦은후 바로 한바가지 퍼준다. 언뜻보면 막걸리 와 비슷하다. 퍼주면 먹어야 한다 .



<인디오 원주민이 마사토 만드는 모습>

이 마사토는 처음에는 술 기운이 없는데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어 술로 변한다.<sup>16</sup> 그래서 이들의 파티에서는 꼭 싸움이 나게 되어있고 그싸움 끝에 파티가 끝난다. 아물든 한사람이 다받아먹으면 배탈과 술에 취할수 있어 방문때마다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한잔씩 받아 먹고 나는 대표로 구워온 개미핥기 먹고 마지막으

<sup>14</sup> 선교는 문화를 알아야 한다-안찬호선교사는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부족을 대상으로 30년간 사역해왔다. 그는 케냐 사람들조차 두려워하는 마사이족 거주지에 24개 교회를 세웠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3개의 중, 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다. 그는 아프리카 케냐 35만 마사이 부족 전체의 명예 대추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처음 마사이족을 방문 했을때 갑자기 선교사님 얼굴에 침을 뱉었다.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선교사님은 추장의 얼굴에 더 크게 가래침을 뱉어버렸다.

마사이족이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상대방을 환영한다는 의식이며 침을 뱉는 것은 물이 부족한 아프리카에서 자기 몸 속의 물을 상대방에게 선사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선교사님은 더 큰 물을 추장에게 선물로 화답한 것이다.

<sup>15</sup> 마사토는 유카(Yucca)를 발효시켜 만든 술이라 보면 된다. 유카는 카사바 라고도 하는데, 생명력이 강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 남미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 수 있는 먹을거리다. 고구마와 무를 반씩 닳았는데, 삶아 놓으면 맛도 그 중간쯤이다. 껍질에는 독이 있어 정글 원주민이 독화살을 만들 때 쓰지만 삶으면 그 독성이 사라진다.

<sup>16</sup> 마사토(Masato) 만드는법-마사토는 남미에서 가장 흔하게 구할수있는 먹을거리인 유카를 입으로 넣어 우물거리다 씹어서통에뱉어 발효시킨 술이다. 처음에는 술기운이 없지만 시간이 갈수록 발효가 되어 술로 변한다. 한 번 삶은 유카는 쉽게 변질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발효시키면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마사토는 우리네 김치처럼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는 지혜이기도 했던 것이다. 원주민들은 “우기에 먹을 것이 떨어지면 며칠 동안 이 마사토를 마시며 버틴다. 몇 잔 먹으면 힘이 나고, 술기운에 기분까지 좋아지는게 당연하다. 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남녀노소 가릴것 없이 다 먹기에 모든 마을이 술에 취해 있다고 보면 된다.(술에 취하면 당연히 문제와 범죄가 생기는것이 당연 하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로 선교사님이 강건너 마을에 아이들 한명(라몽)<sup>17</sup> 데려다 공부 시키고 있는데 그 집에 가보기로 하고 작은 나룻배에 올라타자 가라 앉을것 같아 무척 긴장 하였다. 그 부모는 선교사님이 자기 아이를 공부 시킬려고 센타 시내로 데려 갔을때 자기아이를 팔아먹는다고 경찰에 신고 하여 그 아이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집에 돌아간 아이는 부모에게 사실은 이야기 하고 다시 센타로 돌아와 지금은 고등학교 다니며 앞으로 간호학교 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여 마을로 돌아가 사역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그 아이의 집을 방문 하였을때 그이 가족 16 명이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 하였고 함께 기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었다 .



<라몽 가족-윗줄 왼쪽이라몽,오른쪽이 아버지와식구 그리고 마을 어린이>

**\*6 일차:3 월 26 일(토)-천둥치고 장대 소나기 오다 흐림.**

밤새 천둥치고,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다 새벽에 일어나 후레쉬를 비추고 짐을 싣다.일정이 하루 취소되어 하루 일찍 센타로 가게되어 새벽 5 시에기상하여 문을 열어보니 비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붕 처마 밑에 많은 아이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비오는마을 아침풍경>

<sup>17</sup>라몽은 6년 전 한 선교사가 나우타에 유학을 데려온 학생이고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 이 마을에서 처음으로 한 가정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이번에 일어났고 앞으로 가정 교회개척과 가족의 세례 문제를 놓고 일행과 기도 하였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학교 처마밑에서 우릴기다리는 아이들>



<원숭이와 나무 늘보 & 원주민이대접한 개미핥기>

아이들은 내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나는 머리에 원숭이를 키우는 소녀가 신기해서 쳐다보고.. 세상은 요지경이맞다. 나는 가방을 들고 나룻터로 걸어가는데 차그만 소년이 내가방을 잡는다.내 짐을 들어 주겠다는 눈빛이 강렬하여 가방을 내주었다. 우리의 짐을 나룻터까지 들여다 주는것을 보고 나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생겼다.이 아이들에게는 가르치면 될것 같았다. 이아이들과 원주민의 생활등을 볼때 이마을에는 복음 과 VBS<sup>18</sup> 사역이 필요하단걸 느낄수 있었다.. 돌아가면

---

<sup>18</sup>VBS (Vacation Bible School):여름 성경 학교는 여름 동안에 교회에서 주최하는 단기간의 성경 수업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1894년 처음 시작되었으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군으로 성장시키려는 목적으로 방학 기간에 기독교 교육을 시행하는 학교로, 방학의 분위기는 교회의 어떤 회중 단체보다 교회를 기독교교육 이론의 변화에 보다 더 부합되게 만든다.

1901년 미국 뉴욕에서 휴가학교 운동이 시작되었는데, 방학을 이용하여 성경, 선교이야기, 성경공부, 유희 등을 배우기 위해 시작되었다.한국은 1922년 정동교회에서 처음 실시되어 5명의 교사가 200여 명의 아동을 가르쳤으며, 8·15 광복 이후 여름성경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여 각 교단 또는 개체교회 중심의 정규적 교회 절기 행사가 진행되었다.각 교단은 자체적으로 교육과정을 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하며, 교단 전체, 또는 노회나 연회별 교사강습회를 개최하여 개교회의 여름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여름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하고 예수가 인간을 구원해주어 새사람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한다.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성경교육이 가능하며, 만남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하고 긍지를 심어주어 모든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어른 들도 같이 할수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아이들사역(VBS)을 위해 올수있는 팀을 모집하고 준비 하여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누가 이런 오지까지 목숨걸고오겠는가? 라는 생각이 스쳐 갔지만 하나님께서 준비 하고 계시기에 걱정 없다. 전원 모두 배에 탑승하여 이슬비 내리는 마을 나룻터 위에 옷지 않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어 보았다..역시 무감각이다..손도 안흔들고..옷지도 않고.. 그아이들은 무슨생각하고 우릴 보고 있을까? (아마?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 보다..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다)



<난 저들을 보며 2023년에 이곳으로 사역을 올수있게 기도하였다>

한참을 달리다 선교사님이 급하게 무전을 받는다. 어제 같이온 현지인중 한팀이 힘들다고 저녁에 미리떠난팀이 중간에 배가 사고나서 급하게 연락이 왔다.나무가 프로펠러에 걸려 고장 났다고 한다.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자기들 편하려고 일행을 버리고 말려도 매정하게 먼저 떠났는데..결국은 더 고생하고 말았다..(아마존 강 우기철에는 많은 나무들이 떠내려와 배에 부딪쳐서 사고가 많이 난다.그래서 되도록이면 밤에 배를 안움직이는데 이들은 현지인인데도 이곳에 처음오고 선교사님의 말을 안듣고 밤에 떠나 밤새도록 고생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마존강은 대부분 지역이 전화도 무전도 안되는데 때마침 그시각 안테나 있는지역을 통과할 때 무전을 받았다. 무전을 못받았으면 아마도 몇일을 더 고생했을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고 선교사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배를 고쳐 주고 같이 왔다. 생각보다 늦지 않게 해가 지기전에 센타에 도착했다.오랜만에 샤워하고 사모님께서 맛있는 저녁을 해주셔서 맛있게 먹고 잤다.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2번째 마을 보건소에 가야 한다.

**\*7 일차:3월 27일(주일)- 비가 하루 종일 옴.**

센타에서 일어나니 5성급호텔 부럽지 안왔다.수세식 화장실,시원하게 쏟아지는 샤워,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한번 더 샤워를 하고 산베드로띠베쉬까 2번째 인디오 마을(Llegada a la Comunidad San Pedro 2 zona) 보건소 개원식을 위해 아침부터 센타를 나갔다. 2시간 정도 배로 달려 마을에 도착했다.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지만 마을 대표들이 환영 하여 주었다. 추장이 마을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을 구경 시켜 주었는데 마을 중앙 에 아이들 놀이터 와 운동 시설, 정원등을 이쁘게 하여 놓고 교회를 그옆에 지어 놨다..근데 이단 교회란다.참 가슴이 아팠다..세상 어디를 가도 이단들은 전도와 선교를 열정적으로 잘 하고 있었다.우리 기성 교회들은 각성 해야 한다. 선교사님의 깊은 뜻이 있기에 여기에 보건소를 개원 하였을 것이다. 잠시 방문하는 우리의 생각으로 선교사님을 평가 하여서는 안된다. 행사마치고 센타에 도착 하니 BBQ 냄새가 코를 진동 시킨다.그동안 같이 함께한 모든 분들을 위해 선교사님께서 만찬을 준비 하였단다.성도의 교제는 역시 코밀(음식)이 열려야 한다.오랜만에 맛있는음식을 먹고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고 우리는 제 2기 사역을 위해 이퀴토스(Iquitos)로 떠나야 했다.다행히 국회의원이 이퀴토스로<sup>19</sup> 간다가에 태워다 달라하니 흥쾌히 허락하여 시간과 돈을 절약 하였다.여기는 주일에는 차를 빌리기가 힘들고 비싸단다.

비가와서 차도 막히고 빨리 달릴수 없어 거의 2시간 30 분이걸려 저녁 7시에 이퀴토스 호텔에 도착 했다.국회의원 보좌 하는 담당 경찰이 그동안 나와 정이들어서 그런지 호텔(Victoria Regia Hotel)<sup>20</sup> 로비까지 와서 직원에게 잘해주라하고 떠났다.그래서 그런지 호텔에서 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1차 사역을마치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 하심이 없으면 절대 할수 없었다.)

짐 정리후 샤워를 하고 밀린 빨래 하고나니 배가고파 근처 식당을 찾아 10분 걸어가니 광장이 나왔다.이퀴토스에서 제일 중심에 있는 공원이고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인이 밤을 만끽하고 있었다.코로나로 관광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유럽 젊은이 였다.



<가운데 중앙이 국회의원 과 오른쪽끝이 경찰 경호원>

<sup>19</sup>이퀴토스 시는 아마존 정글 안에 현존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아마존 강을 둘러보고 국립 보호 구역을 방문하기 위한 주요 출발 지역이다.

<sup>20</sup> Hotel.Com 에서 예약,1day \$72,아침 포함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8 일차: 3월 28 일(월)-비오고 흐림

어제저녁 시원한방에서 폭 자고 일어나니 새벽 5시에 눈이 떠진다. 옆 침대에 누워계신 집사님의얼굴이 핸드폰에비쳐 환하다. 집사님은 일어나자마자 잠언을 먼저 읽으시고 모든일을 시작하신다.우린 같이 찬양 드리고 아침 예배를 드렸다. 집사님에게 하루 일정이 취소된 이유를 대충 들어 보니 국회의원과 보건소장과 권력 타툼으로 마찰이 생겼단다. 우리 관습에 국회의원이 서열이 높는데 여기는 보건 소장이 더 낫발이 센모양이다.아침 예배를 드리고 식당에 내려 가니 너무나 근사하게 아침이 준비 되어 있었다.그동안 보지 못한 과일.치즈.빵. 주문하면 오물렛도 준다. 호텔값에 아침이 포함 되어 있어 우리는 점심까지 먹었다.(호텔은 미국에서 미리예약하여 가니 현지보다 30%정도 싸고 좋았다)

정신을 차리고 다음 일정을 하나하나 준비 하는 가운데 집사님이 갖고 계신 산타로사 가는 배표를 보니 허리에 차고 다니던 가방속에 빗물들어가 배표가 젖어 너덜 거리고 프린트 글씨가 잘 안보여 배표를 제 발급 받아야 할것 같아 사무실로 떠났다.호텔 앞에서 모토<sup>21</sup>를 불러 주소를 보여주고 먼저가격을 흥정 해야 한다, 안그러면 바가지이다.(호텔서 물어보니 10 솔 정도면 된다는 정보를 갖고 모토 택시에 물어보니 40 솔 달라하여 10 솔에 가자 하니 10 솔에 가잔다.)

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역시 모토 운전사는 엉뚱한곳에 내려 놓고 내리란다.주위 상황을 봐도 여기서 배표를 파는곳이 아닌데 맞단다..디프란데 오피스아(Diferente oficina)..내 스페니쉬를 알아듣고 다른곳을 물어 물어 찾아가 새로 배표를 받았다.(코로나로 요즘상황을 보니 이곳에서는 외국인이 배표를 직접 못사고 여행사나 에이전트(Agent)를 통해 사야만 한다. H 선교사도 본인이 배표를 직접 구입한것이 아니라 제 3 자(Agent)를 통해 샀던 것이어서 잘모르는것 같았다.)



<새로 받은 배표 와 모토>

나는 미리미국서 인터넷을 통하여 따바짱까 가는 배표를 살려고 노력 하였지만 배표는우리가 페루에 입국하여 입국수속을 마쳐야만 살수 있었고 한달전 정보에는 아침 6시에 출발하여

<sup>21</sup> 오토바이를 개조하여 뒤좌석을 사람이 탈수 있게 만든 삼륜차 인데 잘 넘어지고 사고가 많이난다.큰도시에서는 위험 한데 이퀴토스 에서는 보편화되어 있어 모두 타고 다닌다.시내는보통 10 솔내외 이고 흥정을 하고 타야만 바가지를 면할수 있다.(캄보디아에서는 뚝뚝이라고 부른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12 시간 후 오후 6 시에 도착 예정 이었는데 그사이에 일정이 바뀌어서 오후 4:30 분에 출발하여 야간 항해후 16 시간 후인 그다음날 아침 8 시에 산타로사 도착이란다.. (코로나로 모든 상황이 많이 변하고 있었고, 배표 가격은 아래층이 80 술이고, 윗층이 280 술<sup>22</sup> 인데 우리는 외국인이고 신변의 안전과 코로나 감염등의 이유로 비싸지만 선교사님이 윗층을샀다. 배표 를 받고 확인하니 배가 떠나는곳이 다른 장소임을 알았다. 우린 모토를 타고 배가 떠나는 장소를 가보았다. 왜냐면 우리가 장소를 모르면 내일 엉뚱한곳으로 데려다 줄수있기 때문이다. 모토에서 나오는 매연과 정신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그동안 쌓인 피로 때문인지 골도 아프고 해서 에어본(Airborne)<sup>23</sup> 을 먹고 일찍 잤다.

#### \*9 일차: 3 월 29 일(화)- 하루종일 비움

눈을 들어 창밖을보니 하늘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고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있었다. 예배후 아침먹고 브라질 입국시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니 24 시간전에 받은 코로나 테스트 PCR 받은 서류와 인터넷 입국 비자(AN VISA)를 받아야하였다. 호텔서 물어보니 바로옆에 병원이있다하여 가봤더니 PCR<sup>24</sup> 은 안한다. 호텔서 영어 좀 하는 모토 기사를 불러 주었는데 느낌이 세하다. 난 나대로 너 너대로 영어를 하며 어떻게 든 말이 통하여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장소를 갔는데 머~얼리, 머~어얼리 돌아 가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렇지만 그나마 영어좀 하는 모토 택시고 시간을 못맞추면 우리만 손해라 꼭 참고 PCR 검사를 하는 곳으로 갔다. 검사다마치고(검사비용은 100 술) 나오니 아까 그 모토 기사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 비도오고 기다린 정성과 열정이 기특하여 다시 모토를타고 호텔로 돌아왔다. 역시 모토 기사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였지만우린 다음 여행객들을 위해 10 술만 주고 내렸다.

브라질 비자 하는데 문제가 발생 하였다. 호텔 인터넷이 느려 접속이 잘 안되고 구글도 안열리고 외국에서 내 이메일을 여니 구글에서 차단시켜 이메일도 안열리고 핸드폰으로 서류 작성 할려니 잘 안되었다. 호텔카운터를보니 좀 한가한 시간이라 손님이 없어 직원에게 부탁 하여 1 시간 30 분만에 겨우 마치고 프린트 까지 받을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것이 잘 해결되었고 내일

<sup>22</sup> \$1 에 3.5 술(2022 년 3 월기준)약\$80 이지만 Agent fee 가있어 2 명에 \$210 을지급하였음.

<sup>23</sup> Lmmune Support Supplement -내가 여행중 제일 많이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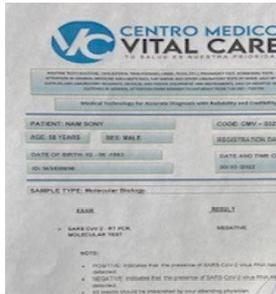
<sup>24</sup> Polymerase Chain Reaction:코로나바이러스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PCR)이라는 특정 진단 방법을 사용합니다. PCR 은 인체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효소를 사용하여 바이러스의 샘플을 증폭시키는 데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증폭 프로세스는 닥터가 DNA 의 바이러스 증폭한 조각이 특정 다른 시약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검토해서 감염되지 않은 개별에 감염에서 미묘한 변이를 검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인간 질병을 진단하기 위한 PCR 증폭은 특정 프라이머와 끝 조각을 사용하고, 환자의 내부 해부학적 특징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NIH 에서 릴리스를 읽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다루기 위한 PCR 의 이러한 독특한 진단 방법은 DNA 를 증폭시키기 위해 폴리머라제 연쇄 반응(PCR)이라고 불리는 시약을 사용합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코로나 검사도 잘나올것을 믿고 있지만 혹시 코로나 걸려 브라질 입국이 안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난 1월달 탄자니아 선교에도 5번의 코로나 검사를 잘 마치게 하였기에 그리 걱정 되지 않았다.



<PCR 확인서&브라질 비자& 공원>

### \*10 일차:3 월 30(수)-이슬비가 오다가 흐리다 해가남

아침에 눈을 뜨니 짐사님은 벌써 일어나 짐을 싸고 있었다. 앞으로 우린 배로 이동하기에 좁은 선상에서 움직일려면 짐을끌고 다니면 힘들어서 배낭에다 매고이동하고 불필요한것은 짐칸에 붙이기로 하였다.그동안 몇일 이퀴토스에서 폭쉬고 하니 몸이 좀 회복 되어 상쾌한 기분으로 짐을 꾸리고 PCR 결과 받으러 병원으로 갈려고 나오니 어제 만난모토 기사가 우릴 기다리고 있었다.우리가 오늘 병원갈거란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단다.정성이 기특해서 다른 모토를 안타고 가격 흥정도 없이 모토에 올라탔다.어제우리와 가격흥정을 하였기에 흥정을 따로 안하였다.어제보다 빠른길로 병원에 도착 하여 NEGATIVE 결과를 받고 바로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기는데 H 선교사가 전화가 와서 오후 2 시에 호텔로 차를 보낼테니 타고 선착장으로 가란다. 솔직히 가방메고, 들고, 끌고, 모토 2 대에 싣고 30 분정도 간다는게 쉬운것은 아니었다. 모토는 한사람만 타도 불안 불안 한데 짐이 많고,중간에 사고 나고 일이 생기면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에 은근히 걱정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아시고 차를 보낸것이다.모토는 선착장 안으로 들어갈수 없지만 차는 선착장 안쪽까지 갈수 있단다.

4:30 PM-페루 이퀴토스(Iquitos)에서 페루 산타로사(Santa Rosa de Yavari)로가기위한 수속을 위해 3 시도착 하니 선착장으로 들어가는 철문이 열려 차로 들어갈려고하니 코로나때문에 차는 못들어가고 걸어서 들어 가란다. 걸어서 3 분정도가니 선착장 건물이 생각보다 크고 화려하여 놀랐다. 저쪽 문앞에서 하얀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라고 손짓한다.앞에는 5 명정도 가 있었는데 문도 안열렸는데 언제 들어와 앉았는지 모르지만 누가봐도 세상에서 말하는 꾀발있는 사람이란걸 알수 있었다.항구 직원들은 연신 그들앞에서 시중을 들고 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 보내기에 내가 한소리 하였다.밖에는 덥고 후덥찌근 한데 안에는 어어콘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외국인 이라고는 우리밖에없고 한소리 하니 나도 건물 안으로 들어 오란다.(나중에 알게 된사실은 남미나 페루에서는 노인이나 임산부 외국인?에게는 줄을 안서도 된단다.)

잠시후 경찰과 보안과직원이 나와 가방을 검사 하고 여권을 검사한후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기다리란다.모든 사람들이 수속을 다마치면 배에탈수 있단다.모두 수속을 마치니 문이 열리고 새로 단장된듯한 부둣가와 배를 연결한 다리를 걸어가니 크고 깨끗한 FERRY (AMAZONAS-I) 가

우리를 맞이 하고 있었다.배앞에서는 나보다 더 배나온 남미 아저씨가 배표를 검사하고 우리를 윗층 좌석으로 안내 하였다.(잠시나마 나는 내배가 정상이라고 느껴 행복했다)

아래층은 약 120명정도 뻘뻘히 앉아있었고 후덥지근한 공기속에 코로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턱스크를 한체로 서로 웃고 떠든다. 윗층으로 올라가니 시원한 공기가 머리를 식혀주었고 좌석은 3명씩 마주보고 앉아 있게 되어있었으며 중간에 테이블이 있었다. 우리를 포함 해서손님 6명과 배에서 일하는 직원 10명정도만 있어 널널히 갈수 있었다.배는 5시출발로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타고 한참이 지난 7시가 되서야 배가 움직였다.늦게 떠나도 누구하나 불만이 없다.오히려 맥주마시고 더욱 신나게 떠든다.시간과 관계없이 떠날때 떠나는시간이 이곳 출발시간 이었다.배 선상에 나가 노을지는 태평양 바다같은 강을 바라보니 너무 아름답다.



<훤리에서본 이퀴토스 강의 저녁노을>

AMAZONAS-I-FERRY 호는고음의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 하였고 바로 강중앙에 진입하여 물살을가르며 떠난다. 프로펠러가 물살을 가르는 모습이모세가 홍해를가르는듯한 착각에빠질정도로 물살을 빠르게 갈라 놓았다.바닷바람보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보니 강이라고 표현하기보다 바다를 달린다는느낌더 크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진다. 회색빛하늘이 자취를 감추고 거칠게내리는 비가 또다른 세상을 만든다.

미접촉 종족인 페루 우라니나족 방문후 이키토스를 출발해 본격적인 아마존강 횡단이 시작이 되니 하나님께 감사와찬양이 절로 나온다.아마존강 하구인 브라질 벨렘까지는 3,700 Km(2,299mi) 인데 주위 사람들도 현지 선교사들도 코로나 상황속에 젊은사람들도 어려운 길을 간다고 걱정 있지만 아무리 힘들고 기나긴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 없다. 배를 갈아타고 국경을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넘고 몇날 밤을 강 위배에서 보낼생각과, 과연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수 있을까?란 많은생각에 번뇌 하면서도 내마음속엔 미접촉 종족을 만날수 있다는 마음에 설레있었고,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것이니 두려움이 없었다.

첫 기착지는 이퀴토스에서 약 400 km 떨어진 페루 산타로사 섬이다.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3개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트라이앵글 지역이다. 이곳 국경사무소에서 간단한 출국절차를 마치고 페루 산타로사 섬(Peru, Santa Rosa de Yavari) 에서 쪽배로 10분 정도 강을 건너가면 브라질 따바쟁가(Brazil, Tabatinga)이고 차로 5분정도 가면 콜롬비아 레티시아(Colombia, Leticia)이다. 국경 검문없이 3개국을 동네마실 다니듯 하는데는 이곳밖에 없을 것이다.

선장이 바로 앞에앉아 커피를 마시기에 나도 믹스커피와 미숫가루를 타서 같이마시면서 산타로사까지 얼마 남았냐고 물어보니 내일 새벽 4 시에서 5 시에 도착 한다. 황당했다. 내일 아침 8 시쯤 도착예정이라 따바쟁가 부둣가에 오전 10 시에 K 선교사를 만나기로 하였는데 5 시간이나 일찍 도착하면 선교사님께 연락할 방법이 없고 깜깜한 새벽에 섬에 내리면 어디 갈테가 없어 황당하였지만 일단 잠부터 자기로 하였다.

**\*11 일차: 3 월 31 일(목)- 새벽에 이슬비 내리다 해가남**

깜깜한 와중에 배가 이름모를 어느 작은 선착장에 섰다. 시계를 보니 새벽 12:40 분, 선착장에 작은 가로등이 희미하게 켜있고 그아래 사람몇명이 배를 탈려고 서있고 몇사람이 내리고 몇사람이 타고 .. 배는 다시 팽음을내며 별빛이 반짝이는 별을 보며 새벽 강을 달린다. 계속앉아 있으니 배안이 약간 추워서 선상에 나가 보았다. 하늘을 보니 별이 안보인다. 별도 안보이고 깜깜한 새벽이라 주위는 볼것없고 배소리만 요란하게들려 귀가 아파서 다시 안으로 들오왔다. 옆에있는 직원에게 몇번 더스냐고 물어보니 내가 말을 모를까봐 내가보고있는 QT (Quiet Time)<sup>25</sup> 책에다 자세히 그려준다. 선장의 자상함을 한수 배우고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데 선원 아가씨가 무언가를 내 상위에 놓는 소리에 눈을 뜨니 아침으로 디너를 가운데 햄 한장 넣은 빵에 설탕을 듬뿍 탄커피를 두고간다. 공짜라 먹으려고 하다 그대로 상위에 났다. 공짜는 양젓물도 먹는데 내가 공짜음식을 안 먹은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 맛이 없다.

선장말대로 새벽 4 시경 배가 산타로사에 도착 했다. 배표과는 직원이 16 시간이라 했는데 선장이 과속하여 일찍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다. 최종 목적지라서 모두 일어나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빨리 내려도 기다려야 하고, 모기 뜯기며 기다리느니 시원한객실에서 여유를 부리며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니 선원이 윗층까지 올라와 내리란다. 내려보니 항구 선착장은 나무로 만든 200 sf 안되는 작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내리자마자 모두대기하고 있는 쪽배

---

<sup>25</sup>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으로서 성경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삶에 적용함으로써 변화와 성숙을 이 루고자 하는 경건의 훈련이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로 옮겨타고 떠나서 나뉘는 봄비가 얇고 한가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배에서내린 사람들은 모두 사라지고 집사님과 덩그러니 둘이 남아 어디로갈까 하고 생각중인데 갑자기 쪽배에서 선장이나타나 ‘이미그레이션(inmigración)’ 한다.나는 씨(Sí) 하고 대답하니 냉큼 우리가방을 배에 싣고타란다.선장은 우리를 싣고 어두운 갈대숲을 헤집고 10 분정도 항해후 내리란다.난감하였다.어두운 새벽에 판자집만 덩그러니 보이는 마을에 내렸기에 더욱 황당했고 이마을에 이민국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안내될수도 없고 해서 10 술을주니 그라시아(Gracias)한다.

가방들고 배에서 내린 마을길 앞에 서있는데(옛날시골 돌밭길)마을 길 저끝에 외국인 한명이 가방을 끌고 우리앞을 지나기에 어디가냐 물었더니 이민국 간단다.이섬에는 또다른 선착장이 있나보다.우린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이민국에 도착(이민국이 걸어서 5분거리에 있었다) 했지만 문은 8시에 연단다.시계를보니 5시 30분 모기는 물고 바람은 안불어 덥고 배가 고팠다.

컵라면 을 끌여 먹으려고 버나를 찾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네아저씨가 네 행동이 희안한지 쳐다보기에 ‘아미고 칼리안테 아와’ (¿Tienes agua caliente, amigo?-친구여뜨거운물 있나요?) 하니 자기집으로 오란다. 난 컵라면 2 개를 들고 졸졸 따라 갔다.5분정도 걸으니 친구는 마을 초입에 나무로 지은 판자집(현지에서는 나무판자집은 비싼집이다)는 을 가르키며 자기집 자랑을 하면서 부엌에있는 개스 스토브에 불을붙여 주며 물을 끌여 주었다. 물끓이는 소리덕분에 개도 깨고 옆에 자던 딸들고 깨고 방안에서 자던 사모님도 깨서 날 쳐다본다. ‘아닌 밤 중에 흥두깨’ 라고 갑자기 나타난 나의 행동에 모두신기한듯 쳐다본다.컵라면에 뜨거운 물을붙고 이민국 앞에돌아와 집사님과먹던 컵라면맛은 한국 사람이면 다아는 환상의 그맛이다.날이 슬슬 개자 이미국 바로앞 길 건너 식당에서 어디선가 나타난 행복한 모습의 앵무새 부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행복해서 앵무새인가 욕심이 없어 행복한가? 어느 상황에서도 행복은 자기가 만드는것같다.)



<페루 산타로사이민국 앞 & 금슬 좋은 앵무새 부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식당에는 앵무새가 주인이었다.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5년전 선교 왔을때 몇번 왔던 식당이고 여기서 먹은 문어 숙회(페루사람들은 우리처럼 생선 회를 먹는다)를 먹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고 설사를 한생각이 났다.이윽고 종업원이 눈을 비비고 나와 식당을 청소한다. 우린 청소하고 있는식당안으로 들어가 커피와 피라루쿠(Prarucu)<sup>26</sup> 튀김을 시키며 주인에게 핫스팟(Hot Spot)<sup>27</sup>을 연결시켜 선교사님과 연락을 하였다. 피라루쿠 튀김이 옛날에 먹던 그맛이 아니다.배도 고픈데 맛이 너무 없었다.분명 어제 저녁에 남은것을 준것같다.

어디선가 유럽 청년몇명이 나타나 기타를 메고 이민국 앞에서 노래를 몇곡 뽑더니 또 어디론가 간다.이섬어딘가에 저들이 놀만한 곳이 있나보다,딱히 놀만한 곳이 없어도 같이 있는것만으로 행복한 나이다.찬송을 듣고 커피를 마시니 나도 모르게 집사님과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시계를 보니 8:45 분,빨리 길건너 이민국 철문을 열고 들어가니 옛날 한국초등학교에서 쓰는 나무 책상에 이민국청년 한명이 먼저온외국인 을맞이하고 있었다.내차레가 왔다.때땀 나에게 In , Out 하고묻는다.영어 참 쉽다. 언어란 서로 말만 통하면 되니깐.. 난 Out 하고 대답하니 책상서 략에서 도장을 찍어주며 가란다.다른나라에서 출국 수속할때의 긴장감은 느낄수도없고 물어보지도 않는다.출국수속을 마치고 주인에게 따바짱까 가는배 어디서 타냐고 물어보니 아까 새벽에 내 린곳으로 가란다. 가방 끌고 비포장 돌길을 걸어가니 바퀴가 모두 고장이났다.여행은 간편하게 가야 하는데 이번에는 선상에서 먹어야 할음식과 장비가 많아 짐이 많아졌다.바퀴가 고장난 가방을 질질 끌고 아까내린 선착장 ? 이라기보다 그냥동네서 아무데나 배를 데고 타는장소 에도착하니 아까 새벽에 우릴 내려준쪽배가 도착하였다.두번보니 반가웠다.따바짱까 10 슐 하니 타란다.우린 삼국경(페루,브라질,콜롬비아)으로 가기위해 배에 가방을 싣고 갈대숲을 헤쳐 나오니 아마존 강의 아름다움과 저 멀리 눈앞에따바짱까가 보였다.



< 페루 산타로사 섬 에서 브라질 따바짱까 로 건너가는 아마존 강 >

<sup>26</sup> 피라루쿠는 세계 제일 큰 민물고기다. 피라루쿠는 천적이 인간 뿐이다. 아마존에 사는 피라루쿠는 꼬리힘이 무척 세다. 피라루쿠라는 이름은 빨간 열매라는 뜻으로 피라루쿠가 몸통에서 꼬리지느러미까지 사이의 비늘이 빨간색을 띠기 때문이다. 피라루쿠에서 ‘피라’ 라는 뜻은 ‘빨강’ 이며 ‘루쿠’ 는 ‘열매’ 라는 뜻이다. 피라루쿠는 최대크기가 5M에 달하며 몸무게는 200kg에 달하는 거대한 민물고기로 신생대 화석이라고 불릴만큼 오래된 민물 어종이다.

<sup>27</sup> Hot Spot: 핫스팟이란 휴대전화의모바일 테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를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며, 연결을 공유하는 것을 테더링 또는 핫스팟 사용이라고 합니다. 일부 휴대전화에서는 테더링으로 Wi-Fi 연결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저 멀리 선착장이 보인다. 멀리서도 우릴 알아보고 김선교사님이 반갑게 손을 흔들어 주신다. 몇년만에 뵈도 여전히 활력 넘치고 행복한 모습이였다. 이곳에는 3분의 선교사님이 함께 신학교를 (삼국경 신학교: Seminario Tres Fronteiras)<sup>28</sup> 운영하며 협력 사역을 하고 계신데 원래 3분다 개인 일정이있어 방문을 할수 없었으나, 김선교사님이 안식년 떠나는날이 몇일 연기되어 방문 할수 이었다. 언제봐도 이곳시장은 도떼기시장<sup>29</sup>마냥 어수선하고 일부 사람들은 아침인데도 술에취해 있고 간혹 마약에 취해 있는듯 하였다. (콜롬비아 에서 생산되는 마약이 이곳으로 유입되어 브라질로 가기에 이곳이 항상 위험하다고 선교사님이 말하신다)

바퀴가 고장난 가방을 끌고 시장언덕을 올라 선교사님차에 가방을 싣고 먼저 브라질 입국수속을 위해 떠났다. 그래야 마나우스가는 배표를 살수 있단다. 차로 10분정도 달리니 브라질 경찰서 (이곳은 이민국이 따로 없고 경찰서에서 이민수속을 함)에도착 했고 입국 수속을 위해 들어가는 데 선교사님은 차를 지켜야 한다고 차 문앞에서 보초를 스고 계셨다. (요세 미국도 차유리깨고 가방 훔치는일이 빈번 하지만 이곳은 더 심한가 보다. 외국인은 #1 표적이다)

방금 30분전 페루서 이민수속할때랑 분위기가 틀리다. 콘크리트 건물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사무실안에는 에어컨이 돌아가고 정복 차림에 키도크고 총도 차고, 말도 위엄있게 말한다. 긴장이 된다. 잘못되면 돌아가야 하니깐.. 담당자는 시간은 10분이나 흘렸어도 컴퓨터 화면에서 얼굴을 안뵈다. 5년전에는 여권에 찍힌 비자만 보고 일을 처리 했는데 이제는 무비자라 컴퓨터로 일을 처리하니 시간이 걸리나 보다. 난 10년짜리 비자를 보였잖아. (2019년 6월전에는 10년짜리 비자를 비싸게 주고 받아야 했는데 2019년 6월 이후로 90일 무비자로 바뀌었다) 인터넷 속도가 느린가 보다.. 잠시후 PCR 과 비자를 확인후 여권에도장을 찍어준다. 우린 바로 마나우스로 떠나는 배표를 사라갔다. (여기도 일반 관광객이 직접 배표를 사기가 쉽지 않고 에이전트를 통해 사야 한다)

콜롬비아 레티시아에서 차로 5분만 가면 브라질 따바쟁가요, 7분간 보트를 타고 강을 건너면 페루 산타로사 섬이다. 국경이 없고 검문도 없다. 국경지날때의 긴장감을 느낄 수 없다. 차를타고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다 배표를 구입하고 선교사님께서 단골로 사용 하는 호텔(Waira Hotel)<sup>30</sup>로 가서 짐

---

<sup>28</sup> 20 만평, 120 에에커(60 헥타) 사이즈의 신학교는 아마존의 삼국경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8 개의 부족 중 가장 큰 부족인 찌꾸나와 꽃까마 족을 사역 대상으로, 각 마을의 지도자와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4-5년간 신학교육을 시켜, 목사 안수를 준 후 그들을 각 부족으로 파송하여 교회 개척을 통한 지역 복음화를 목표로 사역중이다.

<sup>29</sup> '도떼기시장'은 상품, 중고품, 고물 따위 여러 종류의 물건을 도산매·방매·비밀 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 시장을 이르는 말로, '도깨비시장'과 동의어입니다. '도떼기시장'의 어원에 대해서, '도떼기'의 '도'는 '모두'의 뜻을 나타내는 '도(都)'에서, '떼기'는 "장사를 하려고 한꺼번에 많은 물건을 사다."를 뜻하는 '떼다'에서 온 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https://www.korean.go.kr/front/onlineQna>.

<sup>30</sup> 미국 Hotel.com 에서는 이지역 호텔이등록이 안되어있어 현지 선교사님께 부탁 하였음. 이곳선교사님들은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을 내려 놓고 환전을 하러 시장으로 갔다. 3개국 화폐를 환전을 할러니 살짝 당황스러웠다.(페루, 솔(Sol) \$1=3.5 솔/브라질, 헤알(Real) \$1=5.5 헤알/ 콜롬비아 , 페소(Peso) \$1=3,500 페소)

밤새 달려와 브라질 마나우스로 가는 배표(1주일 가는 배와 ,40시간 쾌속으로가는것중 우리는 쾌속으로가는 배표를 샀다)를 구입하니 긴장이 풀린다, 빨래와 샤워를 하니 눈꺼풀이 내려온다..



<브라질 파바짱까 부둣가 & 마나우스 가는 웨리표>

### \*12 일차:4월 1일(금): 흐리다 해가남

눈을 뜨니 새벽예배 시간이다.집사님은 벌써 일어나 내가 깽까봐 조용히 성경을 보고있다. 예배후 아침먹으러 식당에 나오니 식당안에 사람이 꽉차있다.이 호텔(Waira Hotel)이 여기서 제일 음식을 잘하는데란다.먹어보니 미국에 데니스(Denny's) 정도인데 아마존 이고 딱히갈데도 없고하니 현지인들이 등급을 높게 준것 같다.

오전 8시 호텔로 강 선교사님이 차를 갖고와서 우리를 데리고 3분<sup>31</sup>이협력 사역 하시는 신학교로 갔다.5년전에는 동네길이 너무안좋고 진흙이라 차가 빠지고 고생하였는데 지금은 동네길이 잘 포장되어있어 놀랐다.또 신학교에 진입하니 신학교 센타 중앙을 관통하는 폭 1미터 길이 160미터 의 콘크리트 길이 나있었다.앞으로 이길 좌우로 유치원,초등학교,병원을 건축할계획 이란다.

Seminário Teológico Três Fronteiras 삼국경 신학교방문기.

방문자의 신변의 안전 때문에 이호텔을 추천하고있다.(1일\$110 에 아침 포함.주위에 좀 싼 호텔은 위험하단다)[WWW.Wairahotel.com.co](http://WWW.Wairahotel.com.co) (Leticia-Amazonas Colombia)

<sup>31</sup>강광수 선교사,강희정 사모 :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를 하면서 10년 이상 아마존 단기선교를 경험한 후, 2003년 말에 아마존 선교를 위하여 부름을 받고 온 가족이 브라질로 들어와 뿔뚜게스 훈련을 받고 현재 이곳 삼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다.

김홍구 선교사,김창인 사모 :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서 동부 아프리카 소말리아 난민들에게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신학을 하고 목회자로서 아마존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2004년부터 아마존 삼국경 신학교서 사역 중이다.

양성식 선교사,김혜정 사모 : 엔지니어 출신으로 늦은나이에 신학을 공부후 2009년부터 브라질 썬 파울로 소세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시무하시다가 2012년부터 삼국경 신학교에서 사역하고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삼국경 신학교 설립은 2005 년 9 월 6 명의 신학생으로 시작하여 2022 년 5 월 11 회 졸업생까지 40 명이 졸업 하였다.삼국경 신학교에서는 주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순결신앙 및 일반교양과 양계, 양돈, 양어, 농업등의 기술을 가르친다. 이를 위하여, 브라질 및 콜롬비아 목회자 3 명, 삼국경 선교회 소속 선교사 3 명이 교수진으로 수고하고 있다. 학기 중에 신학생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학수업을 하고,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는 신학교 주변의 도시와 인디오 마을의 지역교회에서 봉사를 한다.삼국경 신학교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졸업과 함께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거나 교회가 없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개척 하여야 한다는 선교사와 교회개척자의 사명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저희 삼국경 신학교는 현지인을 통한 지역교회 개척과 아마존 복음화의 목표를 이루어가고 있다. 지역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신학생 후보자들, 인디오 마을의 추장들의 영적 재충전을 위하여, 일 년에 2 차례에 걸쳐 “삼국경 지도자 세미나”를 개최한다. 연초에는 아마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전 집회를 6 회째 진행해오고 있다.

삼국경 신학교는 한 선교사의 헌신 보다는 여러 선교사가 팀사역을 통하여 축복을 받아왔다. 팀 사역은 단독사역보다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일 뿐만 아니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선교사의 삶이 때때로 외롭지만, 팀 사역 정책 아래서는 다른 어떤 선교사가 서로를 위하여 항상 곁에 있다는 잊점이 제공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더 많은 선교사 가족들이 선교팀에 합류하길 소원한다.

교회개척 은 2022 년까지 13 개 교회를 개척 하였다.

제 1 교회개척;바짱가 중앙교회: 2006 년 3 월 브라질 따바짱가 시의 오스왈두 꾸르즈에 있는 한 집에서 현지 선교사들과 신학생 전도사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빌라 벨르지 지역으로 이전하여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주민들과 아동들 30 여명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다.

제 2 교회개척;뿔뚜 에베리투아우 교회: 뿔뚜 에스베리투아우 마을에 교회를 재건축하고 신학생 끌라우지노르와 하파에르가 이교회를 섬기고 있다.

제 3 교회개척;뿔뚜 리마교회:2012 년부터 가정교회로 시작하여 썩 파울로에 있는 대한교회와 협력으로 건축을 시작하여 2014 년도에 헌당 예배를 드렸다. 현재 졸업생 페렌시오 담임목사와 함께 70 여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 4 교회개척;벨렝 부네끄 교회:벨렝이란 마을 옆에 새로이 형성된 부네끄 지역에 2013 년부터 가정교회를 시작하여 2015 년 1 월 말에 예비 헌당식을 거행하였다. 이 지역 주민 40 여명이 호베르또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제 5 교회개척;노부 빠라이주 교회: 학교 건물에서 예배하던 마을 교회가 아마존 삼국경 복음교단과 브라질 현지교회의 협력으로 2014 년부터 건축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건축 중에 있다. (현재총 13 개 교회 개척함)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삼국경 신학교 와 교회개척지도>

이곳에서 사역 하면서 어려운 점이 현지인들이 해방신학<sup>32</sup> 사상이 깊다는 것이다. 그들은 있는사람들것 훔치는것은 죄가 아니다 란 마음을 갖고 있단다. 내가보아도 주민들이 신학교 철조망을 뜯고 들어와 신학교 에서 키우는 과일을 따가면서 절대 죄의식 느

### 32 해방신학의 배경 :

해방신학은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을 떠나서 이해될 수 없는 상황적인 신학이다. 라틴 아메리카는 16 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 해양제국에 의해 식민지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식민지화 과정에서 원주민 인디안의 무참한 학살이 감행되어 브라질의 경우 1,300 만의 원주민이 16 세기 말에는 200 만으로 감소하였고, 페루는 정복군과의 전쟁과 전염병으로 전체 인디안의 인구가 3 분의 2 로 감소할 정도였다. 그 후 여러 세기에 걸친 식민지 지배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의 지배 피지배 계급간의 계층분화와 지배예속관계가 확연하여졌다. 이러한 식민지 국가의 불리한 처지에서 제 2 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하여 비로소 독립국가를 이룩한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전후(戰後)의 세계적인 경제개발과 근대화 운동에 가담했다. 1950 년에만 해도 자급자족의 경제성장상을 낙관하고 경제개발을 위해 우선 <대외의존 성장>의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 그러나 10 년 이상의 경제개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의 빈부격차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조차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벌어진 구체적인 통계를 접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는 부유한 상위 20%와 빈곤한 하위 20%의 소득비율이 1950 년에는 10:1 이었으나 1969 년에는 16:1 로 악화된 것이 통계로 나타났다.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경제적 의존이 심각한 종속체제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종속체제의 내국화(內國化)>가 생겨났다. 이러한 내외적 신식민지주의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뿐만 아니라, 오랜 식민지 지배의 잔재로 야기된 잦은 군부의 쿠데타와 소수의 독재정치 그리고 다수의 문맹자(文盲者)와 소수 종족의 문화적 소외 등으로 지배 피지배의 계층분화와 종속관계가 여전히 신식민지 현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신식민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오랜 경제개발정책과 민주화 민권운동과 문맹퇴치운동 등의 점진적 개혁운동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태는 더욱 악화일로(惡化一途)에 놓이게 되자 이러한 소극적 개혁운동으로는 자신들의 근본적인 처지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이 고조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식민지 통치자의 후예인 유럽인들이 현재 남미 각국 전체 인구의 15~20%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군부, 교회, 광산, 상업, 산업체 등 전 분야를 장악하고 국가의 대부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반면에, 전체 인구의 60~70%로 접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노예화, 절대빈곤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남미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의 현실을 '예속'으로 파악했다. 라틴아메리카는 처음부터 종속국가였으며, 경제적으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압제받는 대륙이라 정의한다. 자본주의 대국(중심국가)의 개발의 세력확장으로 인해 빈곤한 주변국가의 저개발이 가속된다. 그들의 저개발과 그로 인한 절대빈곤은 다른 대국(大國)의 개발의 부산물이며, 이러한 종속관계가 내외 경제사회구조 전체를 지배한다는 이른바 <종속이론>이 대두하였다. [http://kcm.kr/dic\\_view.php?nid=38923](http://kcm.kr/dic_view.php?nid=38923) 2022 년 05 월 21 일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끼지않고 나가는데 봤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신학교안에 물건 집어가고 한단다. 현지 사람들은 항상 신학교 사무실 창문을 자주 두드린단다. 안에 누가있으면 문열고 들어와 물먹고 가고 없으면 물건 모두 들고 간단다. 몇번을 훔쳐 갔단다. 그래서 매일 사무실을 비우면 안된단다. 이번에 양선교사님은 큰아들 결혼식 과 한국에 계신 노모를 뵈러 출타 중이라 이번에 만날수없어 무척 아쉬웠다. 내일 새벽 5 시에 마나우스 가는 선착장에 갈려면 오늘 일찍 자야 한다 최소한 새벽 3:30 분에 기상하여야 한다.

**\*13 일차:4 월 2 일(토):**비가 많이 옴

3:30 AM 브라질 따바징가(Tabatinga)에서 브라질 마나우스(Manaus)로 출발 하기위해 일어나 샤워를 하러 목욕탕에 들어가니 물방개 만한 바퀴벌레가 나를 반갑게 맞이한다. 솔직히 너무커서 조금 놀랐다. 발로 차버리니 빛과같은 속도로 없어지고 한마리가 샤워장 안으로 떨어져 뒤집어져 버렸으나 다시들어가 바퀴벌레 사체를 정리후 샤워를 하였다. 샤워를 하니 많은 엔돌핀(Endorphin)<sup>33</sup>이 돌아 나의 몸은 최상의 컨디션(Condition)이됐다.

우린떠나는 배에 대한 아무 정보도 없이, 아니 알수도 없다. 40 시간 향해 하는동안 배안에서 어떤 음식을 주는지 선교사도 모른단다. 본인들은 마나우스갈때 시간 상 1 시간 30 분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다닌단다. 브로셔를 봐도 아무 내용이 없다. 난 미국서 갖고온 육포, 컵라면, 견과를 큰 가방에서 꺼내 보조가방에 따로 챙겼다. 페루에서 올때도 그랬듯이 큰가방은 화물칸에 싣기에 꺼낼수가 없기때문이다.

새벽 4:30 분, 비도 많이 오고있는데 강선교사가우릴 선착장에 데려다 줄려고 호텔에 왔다. 호텔 매니저는 아침을 싸주면서 다음에 또 오란다. 그도 그럴것이 K 선교사 막내딸과 호텔 사장딸과 친구란다. 비는 오지만 트럭 뒷칸에 가방을 비닐로 덮고 부듯가로 향했다. 배표 살때 배가 6 시에 떠난다고 5 시까지 오라하여 왔더니 문이 안열려 있다. 강 선교사 말이 여긴 그렇단다. 20 분후에 철문이 열리고 가방을 내리고 한참의자에 앉아 있으니 한 아가씨가와서 책상을 편다. 그리고 한참 후 다른아가씨가오니 표를 보잔다. 7 시가 넘어 선착장 으로가는 문이 열리고 한 5 분 걸어가니 제복입은 연방정부 군이 우리의 짐을 검사한후 배에 오를수 있었다. 배에 오르니 단층으로 88 명이 정원인데 사람이 없어 30 명정도만 타고떠났다. 달릴때 엔진소음을 예상하여 앞쪽으로 자리를 정하여 안왔고 8 시가 한참 넘어서 출발한다. 남미시간은 떠나야 떠나는시간이었다. 따바징가 선착장을 사진에 담아 보기위해 배후미로나가 보니 도시가 회색 잿빛 하늘 속에 가려 암울해 보이고 배의 프로펠러로 물살을 가른 흔적이 강하게 강을 갈라 놓고 흔적을 남기지만 그흔적은 금방

---

<sup>33</sup> 엔도르핀(endorphin)은 몸 안에서 분비되는 모르핀(endogenous morphine)이라는 뜻이다. 모르핀은 양귀비에서 추출되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기 때문에 엔도르핀은 대뇌에서 분비되는 자연 마약이라고 불린다. 엔도르핀은 기분을 좋게 하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한다. <https://search.naver.com/엔돌핀.2022년05월22일>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없어지고 언제 지나갔냐고 하듯 흔적이 없다. 우리네 인생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하지만 강위에 배 지나간 흔적이 없듯 우리가 지나온 인생의 수고도 없다.



<따바핑까 선착장 초입 과 떠날때 모습>

선원이 뒷쪽을 가르키며 먹는 시늉을 한다 .뒤에 가보니 너무 놀랐다.아침과 과일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아침,점심,저녁도 호텔에서 먹은것 보다 훨씬 맛있었다. 음식의 특징이 카사바(Cassava)가루, 브라질밥 인 아호스(Arroz),국수 이 3 가지는 항상 나오고 고기종류를 한가지씩준다. 어느때 부터 인가 여행을 하다보면 현지 음식이 느끼하기에 난 항상 쓰리라차(Sriracha)<sup>34</sup> 소스를 갖고 다닌다. 앞으로 1박2일, 40 시간 동안 1,300 Km 항해중 13 번의 부딪가를 들려 마나우스에 도착 예정이라 주는데로 다 잘먹었다.



<과일상, 아침, 점심, 저녁>

페루서 타고온 배는 2 층이라 넓고 크고 불편한줄 모르고 왔는데 이배는 쾌속정이라서 낮고 운동할수 있는 공간이 없다. 배 뒤쪽에가니 시끄럽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1 시간에 한번씩 일어나

<sup>34</sup> 시라차 소스(태국어: ซอสศรีราชา 솟 시라차)는 매운 소스로, 태국 타이 동부의 해안 도시 시라차에서 유래했다. 처음에는 현지 지역 해물요리에 사용하였다. 태국어 "시라차"의 로마자 표기가 "Sriracha"로 되어, **스리라차 소스**로 부른다.

<sup>33</sup> 스트레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절을 풀어주는 것과 근육을 늘리는 것이 있다.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의 가동범위 증가, 유연성 유지 및 향상, 혈액 순환 촉진, 상해 예방 등의 도움이 된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뒤편 후미에 나가 허리피고 스트레칭(Stretching)<sup>35</sup> 하는것이 전부인데 그것도 오래 못하는것이 모터 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파 오래 못있었다. 그래서 앞자리에 앉는것이다. 갑자기 배가 이를 모를곳에 들리더니 갑자기 다내리란다. 마나우스 다왔냐고 물으니 아니란다. 가방을 다 갖고 내릴려고 가방을 달라니 그냥 내리란다. 뭘일인가 하고 배에서 내리니 완전 무장한 군인과 기관총과 대포로 중부장한 전쟁용 군함이 눈앞에 보이니 긴장이 된다. 그들은 비오는데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몸수색과 가방검사를 하고 있다. 한 브라질 특수부대 군인이 우릴 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의 행색이 게릴라로 보였을듯 싶다. (우린 해병대 와 특전사 출신이었다)

별안간 타고온 배를 못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스치면서 두손이 모아진다. 잠시후 임심한 아줌마가 안으로 들어온다. 저 아줌마는 뭘 잘못했기에 안으로 들어오나 란 생각이 든다. 잠시후 셰퍼드 2마리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우리 가방과 몸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맞는다. 마약 밀반입 검사를 하는것 같았다. 그중에 몇명은 체포되고 우리는 다시 배에올라 떠날수 있었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비를 안맞고 방에서 검사받는 특혜를 누린것이였다.



<브라질 특수부대 군함과 쾌속정& 떠나는 풍경>

밤이 깊어져 잘시간이다. 내 좌석옆에 아무도 앉지 않아서 난 의자 3칸을 모두사용할수 있어 허리피고 누워갈수 있었다. 집사님을 보니 벌써 누워있어 한결 마음 편하게 눈을 붙일수가 있었다. 눈을 감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니 감사의 기도가 절로 나온다.

#### \*14 일차: 4월 3일(주일)-호리고 해가남

시속 60km로 30시간이상 달리는 쾌속정에서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변함없이 정글엔 나무가 많고 강물은 넘쳐난다. 어떤사람은 똑같은강 똑같은 나무를 매일 보니 지겹다고 하는데 난 그렇지 않다. 볼수록 신기하고 축복받은 이나라가 부럽다. 그사이 나는 주방장과 친구가 되었다. 주방장은 매 끼니마다 약 한평정도(30sf)도 되는 작은 공간에서 맛있는음식을 만들어내는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 받았다. 주방장이 마나우스<sup>36</sup> 도착예정인 8:00PM 인데 3 시쯤 도착 한다. 또한번 황당 함을 느낀다. 주방 바로앞 화장실을 들리니 너무 깨끗하다. 아마존 황토색 강물을 빨아들여 24 시간 번기로 흘러보내 냄새도 안나고 좋다. 그렇지만 이강물을 식당 주장장이음식 만들 때와 식기 세척할때 쓴다는걸 알았고 이후 나는 설사로 고생 하였다.

긴 여행에는 책이 필수이다. 특히 인터넷도 안되기에 난 긴 여행중 읽을 성경(Bible)과 QT(Quiet Time) 책과 윤 목사님이 목사 안수때 선물한 신앙도서 ‘밥심으로사는 나라’ 를 읽으며 함께 할수있었다. 시간이 되니 다시 벌레 물린 다리가 간지럽다. 보통 6 주이상가고 상황에 따라 몇달도 간다. 4년전에도 그곳에서 물린 자리가 미국에 돌아와서도 몇개월을 지나도 잘 낫지 않아 고생 했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하였는데 잠간 방심한 사이에 무수히 물렸다. 미국서 사갓고간 약은 다 떨어지고 콜롬비아서 산 약은 효과가없고, 마지막으로 혹시 몰라서 페루서 H사모님이 휴효기간을 2년이나 넘긴 한국약 ‘버물리’ 를준게 있어 발라보니 가려움에 효과가 있어 계속 사용하였다.(역시한국약이 최고다)



<마나우스 도착 장면 & 마나우스 부둣가>

오후 3 시쯤 부두에 내렸다. 저멀리 처음 만나는 P 선교사가 반갑게 손을 흔들며 배에서 내리는 우리를 향해 사진을 찍는다. 초면인데 금방 알아볼수 있었다. 큰 도시인줄 알았지만 내가 생각 한 것보다 큰도시였다. 높은 현대식 건물 옆에 유럽풍의 웅장한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가 이국 적이었다. P 선교사는 마나우스 방문을 오기 위해 삼국경 신학교서 사역 하시는 양 선교사님의 소개로 알았다.

나는 벨렘가는 배표를 미국서 사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결국 미국서는 살수가 없었고 현지에

<sup>36</sup> 1669년에 개항한 마나우스인디언 부족 이름을 딴 마나우스(Manaus)는 아마존강 유역의 중심 항구도시로 모든 물품의 집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마나우스는 고무산업이 키운 도시이며, 산업혁명과 타이어산업의 성장으로 1879~1912년 제1차 고무 붐이 일어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고 정글의 금맥을 좇아 이주자들이 몰려들어 도시가 이루어졌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계신 P 선교사의 도움으로 살수 있었다. 우리가 도착 하기전 선교사님이 벨렘 가는 배표를 사놔서 우린 고생 안했지만 선교사님은 우리를 위해 2 달전부터 배표를 알아보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 무더운날 혼자서 부듯가를뒤지며 발품팔아 정보를 수집하였다..요세 코로나 시국이라 옛날처럼 표를 쉽게 살수 없고 인터넷도 전화도 연결 되는게 없었던다.더우기 우리는 몇달전부터 예상 일정표를 만들어 일정대로 여행을 하는터라 우리가 원하는 날자는 더욱 배표 구하기가 힘들었고 그 날짜는 4 박5 일동안 가는 표만 있단다. 근데 이표도 당일날 오전 11 시에 가서 확인하고 검사하는 절차가 있단다.내가봐도 표가 임시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였다.

선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가능하다.그리고 이번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있는 기도힘이 있기에 가능하였다.다시한번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신 동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선교 출발전 부터 예상일정 세워놓고 기도하며 여행하는 동안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란걸 확실히 알수 있었다.사람의 계획으론 이여행을 할수가 없다)

선교사님께서 바쁘신데도 차로 호텔까지 데려다 줘서 너무 감사하였다.난 항구에서 호텔까지 10 분 거리,호텔서 선교사님 집까지 10 분 거리에 있는 호텔(Quality Hotel Manaus)을 미국에서 Hotel.com 에서예약할수 있었다. 호텔체크인후 선교사님이 알려준 호텔서 5 분거리에 있는 샤펁물 지하에서 저녁을 먹은 음식이 배안에서 배탈난것과 더 악화되어 밤새 그리고 그다음날까지 설사<sup>37</sup>로 고생 했다.

1876 년 영국의 탐험가 헨리 위컴(Sir Henry Alexander Wickham)<sup>38</sup> 은 이곳에서 고무나무 씨앗 7 만개를 몰래 가져가 영국 식민지인 스리랑카, 말레이반도, 인도네시아 등 열대 지역에 보급하여 대량 생산함으로 고무 경제로 흥청이던 마나우스를 위기에 빠트리고 고무 가격이 하락하면서 마

---

<sup>37</sup>보통 여행중 설사는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이 원인 이며 묽은 대변, 복통과 함께 항문이 찢어지거나 직장까지 내려온 위산으로 인해 엄청나게 쓰라리고 아프다. 복통도 심한데다가 시도때도 없이 변의가 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온다.그래서 일반 약국서 파는약은 듣지 않고 처방 받은 항생제 (Amoxicillin 500) 만 듣는다.

<sup>38</sup> Wickham took about a year to collect rubber seeds from commercial rubber groves in Brazil after having been commissioned due to his presence in Brazil. Historian Warren Dean notes that it would have been odd for a British expat to collect so many seeds in broad daylight using local labour without local authorities having been aware of it. In fact, he had the permission of the rubber grove operators where he sourced his seeds. He falsely declared 70,000 seeds as "academic specimens", a term the Brazilians frequently used to classify dead animals or plants, not viable seeds. They arrived in London's Kew Gardens on June 15, 1876. Within a few weeks, only 2,700 of the 70,000 smuggled seeds had successfully germinated. They were sufficient to jump-start widespread cultivation in Southeast Asia.

[https://en.wikipedia.org/wiki/Henry\\_Wickham\\_\(explorer\)](https://en.wikipedia.org/wiki/Henry_Wickham_(explorer)) . 2022 년 05 월 25 일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나우스<sup>39</sup> 경기는 큰 타격을 입었지만 1960년대 이후 공업도시로 다시 부활한 도시이다. 삼성과 LG 공장이 있고 큰건물 어디를 가도 LG TV 가 걸려 있어 내심 가슴이 뿌듯 하였다.



<임시로산 배표 와 마나우스 지도>

### \*15 일차:4 월 4 일(월) - 비오다 흐림

새벽에 화장실을 10 번은 더갔다. 물만 먹어도 2 분후에 먹은 물을 반납을하다보니 탈수 증세가 보였다. 설사약을 어제밤에 먹고 아침에도 한알을 먹으니 설사는 멈췄는데 힘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일정한 마나우스개혁신학교 방문을 취소하니 선교사님이 너무 걱정이다. 선교오기전 이런 경우에 대비 하여 카이저 병원(Kaiser Permanente Hospital) 여행담당자에게(이병원에는 여행자 담당 부서가 있어 여행하는 사람들은 예방주사와 교육을 지원받는다) 설사약을 10 개만 달라하니 달랑 3 개만 준다. 더달라고 하니 3 개먹고 안나면 병원에 다시와서 처방 받으란다. 난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왔다. 담당 간호원은 아마존이 물건 파는데 인줄안다. 다시 10 개를 달라하니 룰에 3 개밖에 안된다. 말이 안통한다. 3 개중 하나는 이미 페루에서 국회의원이 설사로 고생하여 한알을 썼기에내가 가져온약은 다먹은 셈이다. 설사에는 굵게 최고다.

점심시간이 넘었다. 음식 못먹고 누워있는 나때문에 집사님도 같이 안먹는단다. 이러다 둘다 쓰러질것 같아 나도 먹을테니 나가요, 하고 호텔을 나와 윗쪽으로 5 분가니 엇! 한국식당이네하고 집사님이 말한다. 고개를 들어보니 한국 식당이 보였다. 몇주만에 한국식당을보니 반가웠다. 문앞에서니 굳게닫혀있는 철문이 가로 막았다. 단번에 이곳이 치안이 안좋다는걸 알았다. 초인종을 누르니 CCTV 로 우리를 확인후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니 한국 사람이 아닌 남미 아가씨가 한국 말고 어서 오세요 한다. 의자에 앉으니 주방에서 주인인 한국 아줌마가나와 인사하며 메뉴판을 내

<sup>39</sup>마나우스(포르투갈어: Manaus)는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주도이다. 인구 2,020,371 명(2014). 아마존 강의 지류인 네그루 강 연안에 있는 항구도시이다. 아마존 분지의 열대우림 지대에 있지만, 훌륭한 문화 시설을 갖춘 아마존 분지 일대의 중심지이다. 해발높이가 높지 않고 적도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어서 매우 덥다. 저녁의 평균기온이 40 도를 넘어간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민다. 메뉴판을 보고 너무 놀랐다. 너무 비싸다. 어제 아래 샵핑몰에서 현지 음식은 \$3 정도였는데 제일싼 비빔밥이 \$25 이고 만두국\$20 이다. 혁 소리가 절로난다. 집사님께 나가자고 해놓고 주인눈치를 보게된다. 주인 아줌마와 아들, 일하는 아가씨의 눈치를 보니 일어서서 나갈수 없는 상황이다. 집사님이 내가 널테니 편히 먹으란다. 한국사람 도와 준다 생각하고 먹기로 했다.

내가 다닌 여행중에 제일 비싼 한국음식을 먹는거라서 먹어도 편치 않다. 내가지킨 만두국은 가게서 산 냉동만두로 만든것이 확실하였다. 먹을때 왜? 한국음식이 비싼지 이해가 안되었지만 나중에 선교사님께 들어보니 음식 재료가 모두 비행기로 공수 된단다. 그리고 돈많은 사람 들만 와서 먹는단다. 음식맛도 그저 그렇지만 그나마 미원 잔뜩 넣고 끝인 만두국을 먹으니 기운이 나고 오후에는 배가 약간 진정 되는 느낌이 든다.

#### \*16 일차: 4월 5일(화) - 비오고 흐림

설사는 아직 진정이 안되었지만 아침부터 선교사님이 오기로 되어있어 일어나 샤워하고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니 걱정스러운 모습을 하며 나타 나신다. 차로 30 분정도 가니 사역 하시는 신학교에 도착 했다. 교실에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학교를 돌아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다. 선교사님은 늦게 신학을 하고 8년전에 한국에서 이곳 후임으로 오셨단다. 선임 선교사님이 누구신지 몰라도 다이루어놓고 후배에게 물려주고 떠남에 존경스럽다.



<마나우스 개척 신학교 교회와 학생들>

신학교 방문후 선교사님 집으로 초대받았다. 간단하게 식사나 하자고. 도착하니 옆집에사는 친구 선교사님내외가 반갑게 맞아주신다. T 선교사님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목회하시다 몇년전에 이곳으로 오셔서 같이 사역하시다 지금은 근처 다른신학교 후임으로 가셔서 사역 하신단다.

난 별기대없이식탁에 앉았다. 점심상이 차려지는데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럽고 황송 하였다. 내가 지금까지 여행 하면서 받아본 밥상중에 최고였다. 어제 한국식당에서 먹었으면 \$300 이상 나왔을거란 생각이든다. (잡채, 불고기, 모듬전, 김치전골, 많은 밀반찬 등등) 생전 처음보는 나그네를 왕처럼 대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감동이고 참 선한 마음에 작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나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나는 많이 먹을수가 없었다.음식이 들어갈때마다 배에선 꾸르륵,꾸르륵 신호가 온다.꽉꽉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너무 미안하였다.사모님은 깨작 깨작 먹는 나를보고 자꾸 호박죽을 끌어 주신단다. 사모님은 그동안 아끼고 아끼던 귀한 음식을 모두 다 내놓은듯하다. 실로 오랜만에 받아보는사랑의대접 이었다.그런 마음 한가운데 우라니나족 마을 에서마사토를 거부한것이 내심 마음 걸린다.그마사토가 그집에서는 제일 귀한음식이었고 제일 귀한음식을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였는데 더럽다고 안먹고 그들의 사랑을 거절한 나는 회개 하였다.식사후 T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신학교도 방문 하였다.



<T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신학교 교회 안에서>

이 신학교는 매일 야간시간에 성인들을 위주로 성경을 가르친단다. 모두 어려운 가운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동이다. 내일 벨렘( Belém)으로 가는 준비때문에 일찍 일어나 차를 타니 비가 쏟아진다.20분이면 간다고 했는데 차가 정체 되어 1시간 40분이나 걸려 호텔에 도착했다.(우리는 이정체 현상이 내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예상 못했다)  
내일 아침 10 시에 만나기로 하고 호텔에 들어서니 그동안 참고 있던 배가 요동을 친다.

#### \*17 일차:4 월 6 일(수) - 비가 많이옴

11:00 AM 에 브라질 마나우스(Manaus)에서 브라질 벨렘( Belém)으로 4 박 5 일동안 1,500Km 를 갈려면 최소한 오전 10 시에는 호텔에서 떠나야 해서 9:40 분에 체크아웃(Check out)을 끝내고 로비에 내려와 기다리는데 10 시 다되서 카톡으로 문자가왔다.선교사님이 20 분정도 늦는단다.집에서 20 분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비가와서 아까부터 길에 서있단다.또 전화가온다 40 분쯤 도착이란다.아 ~ 그러면 배 못탄다는 생각이 먼저들어 난 호텔에서 택시타고 선착장에서 만나면 되겠다는생각에 선착장 지도와 배타는 곳을 알아봤지만 오히려 길도 서로 갈려지고 우왕 좌왕 하다 결국 배를 못타는경우가 되기에 눈을 감고 두손을 모았다. 급한 마음에 사고나지 않고 잘 올수 있도록.. 선교사님은 얼굴이상기되고 미안한 얼굴이 가득한체로 10 시 40 분이되어 차에서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허둥지둥 내리신다. 뒷 트렁크를 여니 빈박스가 가득하다. 1초가 급한데 박스 치우니라 시간이또 흐른다. 사모님이 시장갈때 음식담는 박스란다. 미국선 필요없어 버리는 빈 박스가 여기서는 매우 귀한다보다.

11시까지 항구에 도착하여야 하는데 이미 늦었지만 비오는 날 최선을 다하시는 선교사님의 목숨건 곡예 운전이 시작되었다. 사이드길, 신호위반, 속도위반.. 사고나기 딱! 좋은 날씨와 조건을 모두 갖고 있다. 집사님은 다리가 길어 뒤에 앉을수 없어 앞좌석에 앉아 모든걸 다보고 계신다. 그나마 나는 뒷자석이고 비가와서 앞이 잘안보인다. 미국서 가끔 내가모는 차를타면 내가조금만 속도를내도 난 딸을 나야하니 아직 천국에 갈수 없다고 하신 분이다. (결론은 천천히 가란소리다)

바퀴벌레보고 놀라시는분이 얼마나 놀라고 있을까? 뒤에 있어 집사님 얼굴을 잘 볼수 없지만 집사님은 눈을 감고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다. 이 상황엔 천천히 가라할수도 없고 기도가 최선이였다!

11시가 다 되어가니 전화가온다. 에이전트가 배떠나니 빨리오란다. 그소릴 듣고 더빨리 가신다. 11시가 조금 넘어 항구에 도착하니 항구가 너무커서 당황하였다. 3일전 도착해서 배에서 내릴때 항구가 크다는걸 알았지만 떠날때 보니 항구가 더커서 우리가 타는배가 어디 있는지 못찾겠다. 두분 모두 연세가있어 노안이라 바로 앞에있는것은 잘보이는데 멀리 있는것이 안보인단다. 근데 나도 노안이다. 그러나 난 앞에있는것은 잘 안보여도 멀리 있는것은 잘보인다. 내눈에 저멀리 트럭뒤에 정박하고 떠날준비하고 기다리는 배가 보인다. 배위에서 빨리 오라고 손짓한다. 우린배 떠날까봐 한손에 고장난 바퀴가 달닌가방을 질질끌고 다른 가방은 등에매고 정신없이뛰어 배에 오르니 노란옷을 입고 우릴기다리는 에이전트가 반갑게 맞아준다. 하나님 감사 합니다 란 말이 절로 나온다. (바쁜 와중에 사진을 찍은 내가 대견하다)



<저 멀리 보이는 우리가 탈 배와 수속후 방앞에서 에이전트와 같이>

배에 오르니 노란옷을 입고 우릴 기다리는 에이전트가 여권과 임시로 받은 표를 달란다. (처음에는 배표를과는 에이전트인지 몰랐다.) 에이전트와 배수속을 하면서 뭐가 잘못 됐는지 우릴 윗층 사무실로 오란다. 담당자가 나보고 PCR 서류를 보여주고 폴랜드 말로 뭐라하는데 난 직감에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PCR 서류가 오래되서 문제가 생겼단걸 알았다.(PCR 테스트를 3월 30일 페루에서 받았는데 7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칙은 1일이다) 이때는 모르는척 하고 영어로 말하는것이 제일이다. 어설픈 스페니쉬로 말하다가 더큰 문제가 생긴다. 내얼굴을 연신 쳐다보며 뭐라한다. 에이전트는 우릴 사무실 밖으로 보내고 둘이 한참 이야기 한다. 에이전트는 노프로브로마(문제없다 No hay problema) 한다. 30분 기다리니 에이전트가 우릴 데리고 좁은 선실사이를 인도하여 3층까지 올라가 방으로 안내한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끝났다. 방은 3층 기관실 옆 샤워장이 딸려있는 좀 오래되고 곰팡이 냄새가나며 작은 냉장고가있지만 다 썩어 작동이 안되고 에어컨을 키니 허연 개스만 나오는 방을 보여준다. 외국인 이라 신변의 안전을 위해 특별실을 준비했다. (우린 배에있는동안 특별실의 효과를 누렸다)

할렐루야! 와 함께 그라시아(고맙다 Gracias)하니 웃으며 사진 찍잔다. 그리고 명함을 주고 다음에 또 연락 하란다. 비즈니스 잘한다. 이제야 정신이들어 우릴 데려다준 P 선교사님이 생각났다. 부딪가를 보니 선교사님은 찾을수 없었고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헤어지게 너무 마음에 걸렸다. 언젠가는 다시 만나 은혜를 갚을날이 오겠지하고 그동안 사랑에 두손을 모은다. 우리가 맨 마지막으로 탄줄 알았는데 계속 사람이 탄다. 대체 브라질 (남미) 시간을 알수 없다. 1층부터 배구경을 하기로 하고 짐사님과 1층으로 내려갔다. 1층에 내려오니 우리배는 전문적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급배가 아니라 화물선 목적으로 사용하는 배란걸 알았다. 1층에는 소형 자동차, 오토바이, 각종 화물이 꽂차있었다. 2층에 오르니 많은 사람들이 그물침대인 '해먹(HAMMOCK)' 쳐놓고 요란하게 떠든다. 해먹 과 해먹사이에는 코로나 시국인테 거리두기 를 무시하고 간격이 없다. 모두 딱 붙어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pandemonium)<sup>40</sup> 이다. 코로나 를 아는지? 알아도 전혀 상관안한다. 해먹은 본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색색의 해먹이 걸려 있는 풍경은 장관이다.



<해먹만 사용하는 2층칸 & 3층 방앞에서본 마나우스항구>

뒷쪽으로 가보니 단체로 사용하는 화장실과 샤워장 그리고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는데 식당은 하

<sup>40</sup>아수라장은 끔찍하게 흐트러진 현장 또는 어수선한 모습을 말한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루 3 번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연다. 3 층으로 올라가면 객실이 몇 개 없는데 3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다. 침대만 있는방(Camarote), 침대와 샤워장과 화장실이 있는방(#1 Class), 그리고 스위트 마스터(Sweet master 는 배에 2 개만 있음) 이렇게있었고 우린 #1 Class 였다.

3 층의 반은 매점과 유흥을 즐길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다. 매점에서는 항상 4 박자의 남미의 노래가 아주 크게 아침부터 문열자마자 시작해서 저녁늦게 문닫을때까지 흘러나온다. 큰 공간을 만든것은 아마도 해먹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답답하기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것같고 실제로 해먹<sup>41</sup> 손님의 대부분이 이곳에서 카드, 마작, 각종게임을 하며 보낸다.

오후 1 시가 넘어서야 배는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젠 배가 늦게 떠나도 그러려니 한다. 배가움직이는 동시에 우리는 빈대약을 뿌리고 모기향 2 개를 피우고 식당을 갔다. 식당에 가니 오늘 점심은 안팔고 저녁 5 시에 오란다. 이런 상황에서 먹을려고 미국에서 페루를 거쳐 힘들게 갖고 온 비상식량인 햇반과 1 분 짜장을 먹었다. 다행히 매점에 마이크로오븐(Microwave oven)이 있었다. 그동안 가방이 무거워 투덜거리던 집사님이 참 잘갖고 왔다고 한다. 아직가방 하나에는 누룽지, 참치캔, 깻잎, 김치, 육포, 땅콩, 젤리등 4 박 5 일 동안 배에서 먹을 음식이 꽉차있어 든든 하다.

한참 먹을시간에(난체중 관리를 위해 점심을 많이 먹고 저녁은 안먹든지 아주 조금 먹는다) 햇반 1 개 먹고 배부르지는 않지만 허기는 채웠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우리를 주목한다. 그도그럴것이 이배에는 외국인은 우리들 뿐이고 우린보는 시선이 영화 배우 보듯하여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마 지난 코로나 몇년동안 외국인은 구경도 못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생각은 자유 니까 좋은쪽으로 생각한다.

몸이 끈적거리고 짹짹 하다. 아침부터 우기의 날씨에 이리뛰고 저리뛰고 땀을흘리며 배에 올라서도 쉬지 못한것 같다. 샤워를 할려고 수고꼭지를 트니 천장위 샤워 기에서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내린다. 그러나 물 색깔이 진한 황토색에 눈에도 보이는 불순물이 샤워기를 통해석여 나온다. 기생충<sup>42</sup>도 나올것 같다. 이럴줄알고 나는 입자가 작은천과 이태리 타올을 사용하여 샤워 헤드를

---

<sup>41</sup>해먹이 발명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1000 년경, 마야의 인디언들이 발명했다는 설이 그럴 듯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아, 더 후대에 발명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그리스의 알키비아데스(기원전 450~404 년경)를 해먹의 발명가로 추측케 하는 일부 기록들도 존재한다. 1500 년에 콜럼버스를 본받아 모험을 떠난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루 바스 지 카미냐는 카리브 해 원주민이 낚시그물을 걸어놓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것을 '레데 데 도르미르(rede de dormir)', 즉 '잠자기 위한 그물'이라고 칭하였다. '레데'는 해먹을 뜻하는 포르투갈어로 남아 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스페인의 정복자들도 카리브의 인디언들이 사용하는 해먹과 맞닥뜨렸다. 그들이 사용한 호모카(homoca)라는 단어는 해먹의 인디언식 명칭인 하마카(hamaca), 혹은 하모크(hammok)에서 유래된 단어로, 이는 해먹을 직조하는 섬유를 공급하는 나무의 이름이었다. 21 세기의 재료들이 수용된 것을 제외하면 해먹의 디자인은 수백 년 동안 대체로 변하지 않았다.  
<https://m.blog.naver.com> 2022 년 05 월 27 일.

<sup>42</sup>아마존 강에 사는 '칸지루(Candiru)'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강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의 요도와 항문 등을 통해 몸속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감싸 필터를 만들었다. 물색갈도 좀 연해지고 무엇보다 기생충을 거를수있어 안심하고 샤워를 했다. 집사님은 페루에서 모두들 강물에 들어가 샤워를 할때도 물에사는 기생충 때문에 절대 강물로 샤워를 안하셨고 배에오르셨을때도 샤워를 절대 안하시겠다고 해놓고 내가 만든 샤워 필터를 보더니 얼른 샤워장으로 가신다.



<옆방특실 가족 &햇반과 1분짜장>

3층에있는 다른 객실 사람들은 문을 꼭 닫고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밖은 적도의 따가운 날씨에 습기 많다.우리방은 에어컨이 안나와 방문을 열어 놓으니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미덥지근한 훈풍이 들어온다. 난 식당에서 의자 두개를 갖고와 방앞에 놓고 앉으니 이글거리는 햇빛이 너무 따갑다.우리방이 특실이상 좋은 이유는 선두 맨 앞 조타실 바로옆이라 사람들이 더이상 갈수없고 방옆에는 계단이라 옆방의 소음이 없다.또 계단사이 복도 에서는 반대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그리고 방 옆에 철문이 있어 다른사람들이 들어올 엄두를 못내는데 그래도 밤마다 술취한 사람이나 도적 들이 철문을 열고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와 방문을 열려고 시도한다.문을 강제로 여는 소리때문에 밤에 몇번씩 깨곤한다.(해방신학 영향으로 부자들 물건 훔치는것은 죄가 아니니 우리가 더욱 조심 하여야 한다.그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배에서 그나마 안전한 곳으로 방을 준것 같다.우린 배안에서 움직일때 항상 같이 다녔다.)

#### \*18 일차:4 월 7 일(목) - 새벽에 비오고 아침에흐리다 오후에 해가남

실컷 잤다고 일어나 시계를 보니 새벽 12:45 분이다. 2 층 침대에서 밖을보니 비가 오고있다. 점점 빗줄기가 굵어 지면서 바람도 새차진다.우기철이라 하루에 몇번씩 격는 일이었지만 배에서 격으니 혹시몰라 구명조끼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배가 달리니 비가 방으로 들어온다.급하게 방문을 닫으니 더워서 모기장만 배에두르고 다시 잠을 청한다.

---

으로 들어갈 수 있어 조심 하여야 한다. 칸지루는 머리와 눈이 작고 몸이 부드러우며 푸른빛이 도는 매우 작은 물고기, 아마존 강의 탁한 물에서 위장하는데 용이해 인체를 공격해도 알아차리기 어렵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너무덥고 몸이 끈적끈적하여 방문을 여니 비는 그쳐 있었다. 시원한 바람을 쐬러 바깥으로 나가니 왜?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지 실감이 난다. 공기가 너무 맑은 청정지역이라 그런지 너무 깨끗한 공기가 나의 폐로 들어올때마다 몸의 독소가 정화되는 느낌이다. 평생 도시에 살면서 또 공사하면 나쁜 공기를 수없이 정화시킨 나의 허파와 심장이 보상 받는 시간이다.

세상의 별이 모두 내 머리위에 있었다. 평생 이렇게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별을 본적이 없었다. 혼자보기 아까워 집사님을 불러보지만 대답이 없으시다.. 근데 깜짝 놀랐다. 배가 빠르게 달리는데도 써치라이트(Searchlight)를 켜지 않고 가는걸 알았다. 별이 얼마나 밝은지 별빛을보고 항해를 하고있는 모습에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게된다.

비가온뒤라 바람이 차고 춥다.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4인치만 열어놓고 도적들이 더이상 열리 못하게 얇게 단단히 고정시키고 잠을 청했다.(달리는 배에서는 깊은잠을 잘수없다.여러가지 이유중 침대가 너무작다.나도 작는데 집사님은 다리를 쭉 못펴서 더 힘들단다)

다시잠에깨서 문을여니 여명이 시작되고 저멀리 끝자락에 천등과 번개가 치고있다.이렇게 아침이 시작 되고 있었다. 일어난김에 시원한 강물로 샤워를 하고 새벽예배를 드렸다.언제나 찬송 인도는 집사님이 하시는데 찬송을 잘부르시는 집사님이 있어 항상 행복하다.

배타고 2일째를 맞이 하는아침인데 옆집과의 교체는 아저씨하고 눈인사를 몇번 나눈게 전부다.그들은 배에서 2개밖에 없는 최고급방인 스위트마스터 방 2개를 다 쓰고 있었다. 그가족들이 밖으로 나오는걸 볼수가 없다.저 사람들도 배안에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있는 눈치가 보였다.아마도 부자다보니 타겟 대상임이 분명하다. 근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다 나와 마주치자 아침 먹으러 간단다.공짜가? 나는 어딘지 몰라 따라갔다.아래 2층 햄덕 방을 지나 뒤쪽으로 가니 어제 보았던 식당이 열려 있다.햄덕방 손님들이 줄을 길게 서 있었고 메뉴는 써있는데 알아볼수 없어 먹는 사람들 눈치를 보니 빵과 커피다. 일단 줄을 서서 내차례가왔다.손님먹는것을 가르키면서 달라고 하니 10 헤알 이란다.2개를 사갖고 방으로 오니 집사님이 밖에서 목상 중이시다.

폼잡고 의자에 앉아 먼저 커피를 한모금을 입에 넣고 음미 하는데 음미고 뭐고 할것도 없다. 바로 강에 버렸다.커피가 아니다.시커먼 물에 설탕을 잔뜩 탄 검은물이다. 투명한 1회용 플라스틱 컵에 담겨있어 플라스틱 냄새(화학약품)가 많이 났다. 아마존 화물칸배 식당에서 파는 커피를 미국 스타벅서 파는 커피맛을 기억하며 기대를 갖고 마신 내가 잘못이다. 빵을 꺼내 반을 열어보니 아주 얇은 치즈 한장 넣고 후라이팬에 약간 구워져 있었다.먹을만 하다.난 가방을 열어 믹스커피와 미숫가루를 섞어 마시며 빵과 함께 아침을먹었다.

따가운 햇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변화무쌍한 아마존의 우기철 날씨는 언제 바뀔지 몰라 빨리 반바지에 반팔로 갈아 입고 온 몸에 비타민을 공급받으며 성경을 읽는동안 우리방 옆 3층 복도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와같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밤새 2층 좁은 햄덕에서 밤을 보냈으니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얼마나 답답 한지 이해가 간다. 젊은 커플, 수다떠는 아줌마, 담배피는 아저씨, 아침부터 시원한 맥주마시는 젊은팀, 책읽는 사람, 음악듣는 젊은여자, 카드게임하는 사람들, 마작하는 사람들, 큰 스피커 밑에 앉아 음악듣는 청년들..

그중에 기억나는 사람은 5살정도 되는 남자 아이를 데리고 우리방옆 철문옆에 기대어 이어폰 끼고 아이를 보는 젊은 아이엄마인데, 그 젊은 아이엄마를 보니 갑자기 우리딸과 손자가 생각이나서 난 내가쓰던 의자를 건내 주고 앉으라 했다. 그리고 아기에게 비타민 이 함유된 거미베어 젤리 (Gummy Bear)와 과자를 주니 아이 엄마가 고맙다고 하라고 가르친다. 아이는 금세 오브리гада (Obrigada- 포르투갈어로 고맙습니다) 한다. 그말 가르치는걸 보고 너무 놀랐다. 내가 놀란 이유는 고맙다고 표현 하고 아이에게 가르치는 행동을 처음 봤기 때문이다. 여기 아이들에게 물건을 주면 확 낙아체듯 뺏어간다. 처음에는 나랑 문화가 안맞아 기분이 상하곤 했는데 나중에 선교사로 부터 이유를 들으니 이해가 갔다.

내가 그동안 남미로 여행 다니면서 수많은 아이들에게 과자, 사탕, 빵, 학용품을 줘도 아이들은 고맙다고 말 안하고 낙아체듯 확 뺏어버리고 했다. 그이유는 아이들이 오랜 기간동안 외국인 이 주는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되었었고 본인들은 달라고 한적이 없는데 오히려 우리들이 주었기에 고마워 할필요가 없었다. 내가 생각해도 그들이 물건 달라고 한적이 없다. 오히려 그들은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면 받는 사람이 고마운 것이다. 잘 생각해보니 그말이 맞다. 선교도 물건도 그들이 원해서 가는 경우가 별로없다. 우리가 원해서 선교가고 우리의 잘난맛에 물건을 준 것 같다. 사실 나는 아마존 선교 시작 부터 목사 임직 받을때 북가주 지역 최고의 어른이시면서 캘리포니아 개혁신학대학교 (CA.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신학교 학장이시고 신대원 다닐때 나를 양육시키신 박의훈 목사님의 권면을 놓고 기도 중이었다. 목사님께서서는 권면의 말씀중에 이제 지난 30년동안 평신도 선교사로 건축선교를 하였지만 이제부터는 목사 선교사로 앞으로 30년을 말씀과 제자 만드는 사역을 하라하셨다. 아멘!하고 대답하였다.

현지 젊은 엄마가 아이에게 가르치는것을 본것은 하나님의 응답 이었다. 아무리 물건값다주고, 건물세우고, 빵을갓다줘도, 그것들은 영원하지 못하다. 그동안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느꼈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주면 빵다먹고 떨어지면 그것으로 끝난다. 말씀이 먼저이다. 그래야 모든것이 해결 된다.

벌써 석양이 진다. 배가 이름모를 항구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많이내린다. 한참을 지나도 배가 떠날 생각을 안하여 선원에게 언제 떠나냐고 묻자 오늘 여기서 잔다. 또 황당하다. 우리가 못알아듣으니 배 스케줄을 모른것이다. 배가 정박하고 있으니 모기와 벨레들이 날아다녀 방으로 피신하니 에어컨이 망가져 있어 방이 너무 덥다. 선장에게 가서 사정 이야기를하니 1층가면 배고치는 사람이 있으니 이야기 하란다. 수소문 끝에 사람을 찾아 방으로 데려와 보여주니 스위치가 망가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저서 내일 아침에 고치러온단다. 그럼 우리는 밤새 에어컨 안나오는 방에서 땀흘리며 고생 하여야 되기에 다시 선장에게 말했다니 한참후에 배에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빈방을 모여주며 오늘 밤만 여기서 자란다. 잠은 여기서 자고 화장실과 샤워는 우리방에서 하기로 하고 승락 했다. 침대만 2개 있고 샤워장과 화장실이 없는 방인데 곰팡이 냄새와 빈대 와 벼룩이 있을것 같아 침대를 들어 올려 뒤집고 빈대약을 치고 모기향 2개를 켜고 2시간후에 들어가니 예상대로 많이 죽어 있었다.

이렇게 두번째 밤을 보내기 위해 방에 누우니 바로옆 매점 광장에서 큰 음악소리가 침대를 들썩 거리고 우리방 앞에서 떠드는 소리가 요란다..새벽이 한참 넘어 소나기가 쏟아지니 모두 2층 햄떡방으로 내려가 조용하다.

#### \*19일차:4월8일(금)- 흐리다 해가남

아침일찍 눈이 떠져 QT 를 하고 1층 화물칸으로 내려가보니 많은 물건을 내리고 새로 물건을 싣고 있다.언제 떠나냐고 물어보니 모른단다.맞다 떠나야 떠나는것이다.난 어제만난 전기 수리공을 찾아 빨리 고쳐 달라하니 그때야 스위치를 사러 선착장 밖으로 나간다.아쉬운건 나니 참아야 한다.9시가 넘어야 나타나 스위치를 바꾸니 에어컨이 빵빵 잘 나온다.문앞에 앉아 성경을 보고 있는데 상인들이 올라와 각종 물건을 판다.잠시후 젊은 청년이 구굴 번역기로 나에게 말을 건다.자기가 식당 사장인데 음식이 아주 맛있다고.배안에서 파는 음식은 강물로 만들어 안먹었는데 배 밖에서 만들었다고 하니 귀가 솔깃 하다.사진을 보니 먹을만하여 소고기 요리를 시키니 20 헤알(약\$4)이란다 .젊은 사장은 20분후에 음식을 갖고 왔고 생각보다 맛있게 먹었다.배는 12시가 되어야 떠난다.가만히 보니 어제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밤새 땅에서 놀다 다시배에 타고 있었다.이렇게 오래 정박 할줄 알았으면 나도 근처 를 구경할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가 중간 중간 기항지에 닿을 때마다 음식과 물건을 팔려는 상인들이 몰려들었다. 긴 장대 끝에 반으로 자른 페트병을 매달아 물건을 올려 보내고 돈을 받는 모습들이 아주 익숙했다.나도 물과 바나나를 살수 있었다. 미국서 떠날때 난 혹시 몰라 해먹을 갖고 왔는데 도로 그냥 갖고 갈수 없어 그래도 한번 퍼봐야겠다싶어 2층 해떡방에 칠수 있나해서 2층 구경에 나섰다.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니 꼭꼭어안고 있는 연인,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그중 놀란것은 성경책을 보는 사람이 내눈에 3명이상보였다.마음속으로 축복하였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조타실에서본 아마존 풍경>

조타실 바로옆에 방이 있다보니 선장과 친해져서 배에서 유일하게 조타실에 놀러 다닐수 있었다. 배 선두에서 보는 아마존강은 더 아름답고 웅장 했다. 마침 눈앞으로 지나가는 거대한 화물선을 보니 바다라고해도 전혀 의심이 들지않는 모습이다.

#### \*20일차:4월9일(토): 해뜨다 비가옴

배가 넓은 강을 지나 섬 사이의 좁은 수로가 이어지는 수역으로 항해하기 시작했다.강 옆을 자세히 볼수 있어 보니 10 미터가 족히 넘는 나무들이 눈에 띄어 야자수 인가 ? 하고 옆사람에게 물어 보니 아사이(Acai Berry)<sup>43</sup>란다. 몇년전 삼국경신학교 방문시 신학생들이 높은 나무에 올라가 아사이 열매를따다 직접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줘서 먹은적 있어 그 효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는데 저렇게 높은줄 몰랐다. 여기 원주민들의 유일한 수입이 아사이 열매 채집인데, 위험하고 목숨걸고 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란다.

---

<sup>43</sup>아사이베리(Acai Berry, Euterpe Oleracea)는 브라질 북부 아마존 열대 우림지역 인근에 자라는 야자수 열매이다. 이 야자수는 전 세계에서 서식하는 약 2,500종의 야자수 중에서 특별한 야자수로 분류된다. 아사이베리는 브라질 원주민들이 '생명의 나무 열매'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하다. 둥글둥글한 모양의 아사이베리는 맛있는 과즙과 구슬 같은 씨가 있다. 맛은 딸기와 초콜릿을 합한 맛으로 달면서 맛이 독특하다. 또한 보라색이 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좋다. 일년 내내 열매를 맺지만 7~12월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아사이베리는 수백 년 동안 브라질 원주민들이 겪는 홍수 범람 후 기아에서 구출해 주는 에너지원 식품으로 칭송을 받아왔다. 또한 아사이베리에는 풍부한 항산화제와 필수 영양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폴리페놀, 안토시아닌, 파이토스테롤, 알파토코페롤, 미량무기질, 섬유질, 단백질, 글루코사민, 셀라드린, 퀴닌산,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이 들어 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 <아사이나나무-Acai Berry >

갑자기 주위가 부산해졌다. 사람들이 난간으로 나와 비닐봉지 안에 음식, 옷, 등을 넣더니 비닐봉투에 바람을 불어넣어 팽팽하게 만들어 강에 던진다. 강위에 떠있는 그것을 줍기 위해 아이들이 쪽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 배근처로 오는데 너무 위험하다. 큰배가 지나가면생기는 파고를 일으키는 물결을 어린 아이들이 힘겹게 안간힘을 다해 노를 젓어 온다.우라도 가방에 있는 모든 간식을 탈탈 털어 넣어 힘껏 던졌다.그것도 모자라 쓰던 비누,치솔,1 회용면도기등등 모두 던져 주었다. 집사님은 불쌍하다면서 매점으로 달려가 과자를 모두 사다 작은배에 아이들 4 명을 태우고 오는 젊은 아이 엄마에게 던져 주었다.나도 마지막 남은 비상용 간식과 비프저키를 담아 아이들이 탄 배를 향해 던졌는데 바람이 불어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 아이들이 꼭 건질수 있도록 기도하였고 다행히 저멀리보니 내가 던진 봉다리를 줍고 있었다.

이지역 수로 근방에 사는 원주민들은 이렇게 지나가는 배에서 던져주는 음식으로 생활한다.그들을 보며 다음에는 음식이 아닌 복음을 들고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아마도 선장이 원주민을 위해 일부러 이 수로를 지나가는것 같은 느낌이다. 다끝났나싶어 방으로 들어 갈려니 계속 해서 구걸하는 배가 나타난다..다 줘서 나중에 나타난 아이들에게는 줄게없어 미안 했다.



< 강 수로에 살면서 구걸하는 원주민들 >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배는 수로 사이를 빨리 달리지 못한다. 이상황을 아는 원주민이 천천히 항해하는 우리 배를 향해 작은목선에 모터를 달고 전력질주하여 배에 달라 붙는다. 위험천만해 보였지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가왔다. 배안에는 운전하는 남자(아빠?)와 10 살 정도되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강오 두막에 살며 강 위에서 구걸로 연명하는 원주민중 일부 인것 같았다. 여자아이는 달리는 배에 단숨에 올라 3 층까지 왔다.어깨에맨 보따리에 그들이 잡은 민물 새우,병에 담긴 젓갈류,마사토 가루 등을 팔고있었다 .여자아이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한다,팔아 달란 이야기가 분명한데 살게 없다. 옆 사람들이 아이에게 뭐라 하니 소녀는 아빠에게 큰소리로 뭐라하니 금방 아이 아빠가 큰 자루를 메고 올라온다.민물새우 삶아 놓은것 인데 꽤 많다.옆사람들은 그걸 다사서맥주 파티를 연다. 승객들은 꼭 필요해서보다 도와주기 위해 물건을 사는 것 같았다. 선장도 이들의 위험한 행동을 눈감아주고 있었다. 나도 도와주고 싶었다.그냥도 도와주는데 목숨걸고 배에 올라와 물건을 파는데 뭐라도 사주고 싶었다.나는 5 헤알 주고 민물 새우를 샀지만 설사가 멈추지 않아 먹을수가없어 그동안 햇반과 컵라면을 마이크로 오븐에 데워준 매점 아줌마에게 주니 너무 고마워하며 맛있게 먹는다. 아마존강 하류에 이르면 강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100 km 이상 좁은 수로가 이어지며 수로 양쪽에 이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

내일 벨렘 도착이라 선장에게 내일 몇시에 벨렘 도착 이냐 물으니 새벽 4 시란다. 이번에 배로 여행 하면서 항상 그랬듯이 예상시간은 항상 맞지 않았다.너무 일찍 도착이다.생각해보니 늦게 오는것 보다 일찍 도착이 좋다. 벨렘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 마중 나올 사람이 없다.선교오기 전부터 내가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방으로 연락하고 알아봐도 한국 선교사님이 1 명도 없는 곳이다.참 희안하다.세상 오지를 가도 한국 사람 은 있었는데 여기는 없다.그러나 걱정 안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내일부터 발품팔아 이곳 저곳 선교지를 찾아 다닐려면 몇시간이라도 눈을 붙여야 한다.

**\*21 일차:4 월 10 일(주일):** 이슬비와 흐림

벨렘은 1616 년에 포르투갈인에 의해 세워진 도시로 인구 230 만명에 이른다. 대서양에서 100 km 떨어진 아마존강 탐사의 관문으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마나우스를 떠난 지 5 일째 되는날 새벽 2:30 분에 일어나 샤워하고 짐을 정리하였다.3 시가되니 선장이 안내방송을 한다.4 시전에 벨렘에 도착 한다고,잠시후 아마존강 유역의 최대 항구인 벨렘에 도착했다.너무 일찍 도착해서 역시 황당하였지만 잿빛 회색하늘로 덮인 웅장한 도시를 보니긴장감이 돌고 다른 세계로 시간 여행을 온듯했다.약간의 이슬비가내리고 구름속에 가려진 시내를 보며 배는 강한가운데를 아주 천천히 움직이며 무전을 주고 받는다.몇십층짜리 고층 빌딩이 수없이 많은 거대한 도시인데 큰항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구를 지나쳐 따바쨩가 부둣가보다 작은 후미진 곳에 배가 멈추고 내리란다. 잘못 온것이 아닌가 해서 선장 과 주위사람들에게 벨렘 이냐고 몇번 물어도 맞단다.



<새벽에본 벨렘>

내려도 날 기다리고 반기는 사람이 없었지만 빨리 내리고 싶었다. 지난 5 일동안 배안에서 생활이 힘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빨리 내리고 싶어서 줄서서 기다리는 인파속에 섞여 빨리 내렸다. 그러나 이제부터 문제이다, 그전 까지만해도 선교사님들이 차를 갖고와서 태워주고 안내해줘서 너무 편했는데 이젠 혼자 해야 한다. 당장 배에서 내리니 호텔까지 가는 택시잡기 싸움이 시작된다. 어딘선가 낯선 사람이 오더니 가방을 들어주며 자기차에 무조건 싣고 어디가냐고 묻는다. 호텔(Holiday Inn Express Belém Ananindeua) 주소를 모여주니 200 헤알 달란다. 너무나 바가지다. 난 가방을 다시 꺼내 철조망 밖으로 걸었다. 또다른 사람이 붙는다. 100 헤알 달란다. 대꾸도 안하고 철조망을 지나니 길에 많은 택시 가 보였다. 미국서 택시요금을 조사하고온터라 30 에서 40 헤알 정도면 호텔까지 갈수 있어 그금액에서 차를 고르고 있었는데 저 끝에 허름한 차를 놓고 담배 피우는 기사가보여 40 헤알에 호텔가자고 하니 OK 한다. 택시기사 아저씨는 제발로 걸어온 첫손님이라 기분이 좋은가보다. 이슬비 내리는 새벽길을 나는 빨리가자고도 안했는데 기사 아저씨는 호텔가서 빨리 쉬라고 파란불은 파란불이니 가고 빨간불도 그냥간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고없이 잘 도착했다. 문제는 너무일찍 체크인(Check-in) 을하여 1 일치를 더낼려고 생각 하였는데 지배인이 그냥 아침 6 시에 체크인 하여주고 아침먹으라고 식권도 2 장 준다. 참 감사한 하나님이다.

미국서 호텔예약할때 첫째 아침나오고, 공항 가깝고, 시내 가까운곳, 가격을보는데 이곳 벨렘은 호텔가격이 보통 \$30 대로 대체로 싼편이었다. 아마도 관광지인데 코로나로 사람이 안와서 가격을 내린것 같다. 오랜만에 아침을 풍성하게 먹고 방에올라와 에어컨을켜니 미지근한 훈풍이 나와 프론트 데스크(Front desk)에 내려가 이야기를 하니 더좋은 방으로 침대 2 개가있고 전망 좋은방을 준다.(난싼방을 찾다보니 침대 1 개짜리를 예약 했었다) 오늘은 밀린 빨래하고 폭신한 침대 곁에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절대 떠나지 않을것이다.

#### 22 일차.4 월 11 일(월):하루종일 비가움

아침예배를 드린후 아침을 든든히먹고 한국 교회나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 나섰다.일단 인터넷으로 검색하여도 전혀 정보가 없어 호텔직원에게 제일큰 시장을 알려달라하니 호텔에서20분가면 옛날 전통재래시장(Mercado Ver-o-Peso) 이 있다. 거기가면 한국사람이 장사 하고 있지 않을까 하여택시를 타고 떠났다. 비가 너무 세차게 온다.시장에 도착하니 몇백개의 상점들이 있는데 비가와서 그런지? 아니면 밤에만 여는지? 반은 닫혀있고 먹는 장소만 사람이 바글바글하다. 한참을 비를 피하며 다녀서 그런지 배가 고파온다.식당 만 물려 있는 골목을 들어가 먹을만한 곳을 찾아 다니면서 그동안 여행중에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사람이많이 줄을 선집을 선택하였다.그 선택은 잘한것이였다. 그집은 아사이 죽을 파는곳인데 생선 튀김과 같이 나오고 남녀노소 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있었다. 난 자연스럽게 줄을 섰고 10명도 앞지 못하는 작은 공간에 자리를 잡을수 있었다.처음먹는 아사이 죽인데 맛은 아무맛 안나지만 그냥 건강에 좋으니 먹었다.



< 아사이 죽을 맛있게 먹는 모녀 >

사베 코리아노?( 한국사람 알아요?sabes coreano?) 아무도 모른다.시장이 워낙 크고 광대한데 비가 너무 쏟아져 다닐수가 없다.오늘은 더이상 찾을수 없다.그흔한 중국 사람도 볼수 없다.이큰도시에 한국사람은 고사하고 중국 사람도 볼수 없다는게 큰 의문을 남기고 호텔로 돌아갔다.

#### \*23 일차:4 월 12 일(화) - 하루종일 비가움

눈을 뜨니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린다 내가사는곳 캘리포니아와 가뭄으로 고생하는 아프리카를 위해 줌 나누어달라고 기도하였다. 오늘먼저 할일은 내일 출국 준비로 코로나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미국서 브라질입국할때는 PCR 을 요구 하지만 반대로 브라질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없다. 인터넷을 찾아 보고 호텔에 물어봐도 모두 모른다. 일단 택시타고 시내로나가 제일큰 병원에 들러 코로나 검사 하냐고 물으니 한번도 안해 봤단다. 다른 큰병원에게도 안한다. 사람들은 마스크르 쓰고다니는데 해외로는 안나가서모르나? 란 생각이 든다. 다시 여행사에 찾아가 PCR 어디서 하냐고 물으니 모른다. 마지막으로 미국에게신 윤목사님께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상파울로 사는 데이빗 목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정보를 받을수 있었다. PCR 이 아니고 Antigenos 를 받아도 된단다. 다행이다 PCR 은가격(\$120)도 비싸고 검사하는데도 까다롭지만, Antigenos 가격(\$40)도 싸고 결과도 빨리 나오고 까다롭지 않다. 검사는 공항에만 한다. 우린 공항으로 이동하여 코로나 검사 하는곳을 찾아 예약(미국 입국 24 시간전에 해야함)하고 다시 시내로나와 한국사람을 찾아 다녔지만 아시안사람 자체를 구경 못했다. 대형 샵PING몰에 들어가니 젊은 학생들이 우털보고 신기한지 사진을 찍잔다. 벨렘은 관광도시이고 한국 삼성과 LG 공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지간하면 장사도하고 교회도있을법 한데 우리가 못찾아서 그런지 없다. 벨렘서 3 일동안 중국사람도 못봤으니 연구해야할 지역임이 틀림없다.

#### \*24 일차:4 월 13 일(수)- 흐리고 비가옴

5:10 PM 에 벨렘에서 SF 출발 이지만 아침먹고 7 까지 공항가서 코로나테스트(Antigenos)받아야한다.출국수속이 3 시간전이니 오후 2 시전에 모든것이 끝나야 한다.그동안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여 약간 걱정이 되었다. 만약 코로나 걸렸으면 2 주를 격리하여야 하고 그로인해 생기는 여러가지 시간과 금전적 손해등등.. 이내 정신차리고 카톡으로 기도를 요청하였다.기도만이 살길이다.1 월달 탄자니아 선교에도 코로나검사를 5 번이나 하였지만 아무 이상 없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실 확신이 생긴다. 코로나 검사후 호텔로 돌아와 짐정리하고 오후 1 시에 공항에 도착하여 코로나 검사 용지 봉투를 받고 뜯어보지도 안았지만 negative 란 확신 생겼다. 하나님과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수속다마치고 5:10 PM 정각에 비행기는벨렘 을 출발하였고 상파울로 에 도착하여 미국으로 가기 위해 세관과 환승 수속을 마치고난뒤 미국 비행사 직원이 안전 점검을 위해 질문을 한다. 어디 갔다오냐고? 난 선교사고 아마존 선교갔다 집에 돌아간다고 대답했다.수고했다.난 한가지 부탁을 했다 .좌석을 중앙으로 하지말고 길가로 해달라고 ,알았단다 좋은 좌석을 준단다.비행기에 올라 좌석을 찾아 들어가는데 너무 놀랐다.진짜 좋은 좌석을 줬다.내가말한 길옆 자리인데 비지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준것이다. 안그래도 앞으로 14 시간비행을 좁은 좌석에 앉아 갈려니 허리가 아플것같아서 미리 걱정하였는데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좋은 좌석을 준비해 놓으셨으며,4 월 14 일(목)1:40 PM -SF 도착해서 우버를 타고 무사히 집에 잘 도착 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FRONTIER ECCLESIA MISSION

A California Non Profit 501(c) (3) Organization No: 85-1289109

### 아마존 미접촉 종족(Unengaged People) 개척을 위한 비전트립 일기

선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수있다. 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여러나라를 거칠때마다 서류준비 와 코로나검사, 연속으로 배를타는 일정 속에 하나만 잘못되도 여행을 할수 없는 상황이된다. 모든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고 무엇보다 물질과 기도로 함께한 교회와 동역자분들이 있기에 가능하였다. 부족한 중을 세워주시고 사역을 위해 전적으로 믿어주시고 응원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도제목

1. 이번 비전트립 중 방문한 페루 아마존 우라니나족 선교를 내년 2023년 3월중순에 갈려고 준비중 입니다. 사역내용은

- 1) 우라니나족 마을에 많은 아이들이있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아이들이 VBS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수 있도록, VBS 선교팀이 준비 되도록)
- 2) 우라니나족 마을사람들은 강물을 떠다먹어 회충이 많아 배가 볼록 나와있는데 정수된 물이나 우물 사역을 할수 있는팀이 갈수 있도록.
- 3) 마을에 여자분들이 머리도 안감고, 치솔질도 모르고, 머리손질도 할줄 모릅니다. 그곳에는 미용실이 없고 구경도 못합니다. 이 미용에 은사가있는 분들이 가서 섬길수 있도록.

2. 페루아마존 한원강선교사님이 나우타에 교회 건축을 준비중인데 순조롭게 잘 진행되도록.

3. 브라질 마나우스 부터 벨렘 중간 수로에 사는 인디오 원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복음을 전파할수있는 길이 열리도록.(현지에서 쪽배를 빌려 이동하며 생활을 할수있는 현지어에 능통한 협력자를 붙여 주세요)